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제 99 회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 현 주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요인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 청소년전공

박 진 희

2016년 8월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요인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8월

중앙대학교 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 청소년전공
박 진 희

박진희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정함

심 사 위 원 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6년 8월

<목 차>

I .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목적	7
II . 이론적 배경	8
제1절 학교폭력의 개념과 연구동향	8
1. 학교폭력의 정의	8
2. 학교폭력 관련 연구 동향	9
제2절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5
1. 개인요인	15
2. 지역사회요인	20
제3절 개인-지역사회 간 상호작용 효과	31
1. 생태학적 이론	31
2. 개인-지역사회 간 상호작용 효과	37
제4절 연구문제와 연구가설	42
III . 연구방법	45
제1절 연구 설계	45
제2절 자료수집	48
1. 자료의 구성	48
2.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48
3. 전국범죄피해조사	49
4. e-나라지표	50
제3절 변인의 구성	51
1. 학교폭력 경험여부	51

2. 개인요인	51
3. 지역사회요인	52
제4절 분석방법	55
1. 위계적일반화선형모형(HGLM)	55
2. 분석모형	56
제5절 연구모형	62
IV. 연구 결과	63
제1절 주요변수의 특징	63
1. 기술통계	63
2.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	64
제2절 분석 결과	68
1. 기초모형 분석 결과	68
2.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69
3.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79
V. 요약 및 결론	85
제1절 결과요약 및 논의	85
제2절 한계점 및 제언	91
참고문헌	95
부 록	111
1. 종속변수 :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2))	111
2. 개인요인(level-1)	111
3. 지역사회요인 측정(level-2) : 한국범죄피해조사	115
4. 지역코드	117
5. 조사대상자 시군구 분포	122

국문초록	124
------------	-----

Abstract	126
----------------	-----

<표 목차>

<표 II-1> 학교폭력 관련 변인	10
<표 II-2> 지역사회요인	24
<표 II-3> 학교폭력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수의 구성	36
<표 II-4> 연구문제 1-가설	42
<표 II-5> 연구문제 2-가설	43
<표 III-1> 측정변인	54
<표 III-2> 분석 모형 구성	57
<표 III-3> 기초모형	58
<표 III-4> 2단계 분석모형	59
<표 III-5> 3단계 분석모형 예시	60
<표 IV-1> 기술통계	63
<표 IV-2> 학교폭력 피해경험-개인요인 간 상관관계 표	65
<표 IV-3> 학교폭력 가해경험-개인요인 간 상관관계 표	66
<표 IV-4> 지역사회요인의 변수 간 상관관계 표	67
<표 IV-5> 기초모형의 무선효과 크기	69
<표 IV-6>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HGLM 분석 결과	73
<표 IV-7>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대한 HGLM 분석 결과	81
<표 부록-1> 학교폭력 가해, 피해	111
<표 부록-2> 개인, 가정, 학교 특성	111
<표 부록-3> 지역사회요인	115
<표 부록-4> 지역코드	117
<표 부록-5> 전국 시군구 별 조사대상자 분포	122

<그림 목차>

[그림 II-1] 생태학적 이론 모형	33
[그림 III-1] 연구모형	62
[그림 IV-1] 지역사회요인의 수준에 따른 개인요인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영향력 변화	78
[그림 IV-2] 집합효율성 수준과 교우관계 수준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대한 효과	84

I.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한 사람의 성장에 환경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라는 고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고대시대에도 맹자의 어머니는 어린 맹자의 교육을 위해 세 번의 거처를 옮기며 맹자의 교육에 힘쓰고자 했다. 이처럼 교육 환경에 대한 관심은 역사적으로 보편적인 생각이며,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또는 교육 관계자들은 누구나 그 중요성에 대해 공감할 것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인 정책 과제이다.

요즘은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 어떤 환경보다도 학교폭력이 부모들에게 가장 우려되는 교육환경이다. 그만큼 학교폭력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문제이다. 학교폭력 없는 학교가 성적이나 대학입시 결과보다 더 자랑스러운 학교의 슬로건이 될 만큼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환경은 교육에 큰 장애가 되는 환경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을 피하기 위해 부모들은 21세기형 맹모삼천지교를 계속해야 하는가? 지금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 고심해야 할 때이다.

최근의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의 구성 단위인 도시 내에서의 다양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공간적인 자원 등을 어떻게 활용하고 연계할 것인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임은미, 박진희, 강혜정, 김혜영, 2013). 학교폭력이란 폭력 중에서도 학교를 배경으로 학생 간의 다양한 폭력행위를 의미한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 환경뿐 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매일 다녀가는 등굣길, 자주 마주치는 성인들, 골목길의 상인들, 친구들과 모이는 공원이나 장소까지 폭넓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교통편을 이용해 이동하는 성인들과 비교하여 생활반경이 좁을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에게 교육환경 중 지역사회 환경의 영향력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개인요인과 가정 요인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의아한 점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의 맥락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지역사회 연구는 이미 해외에서는 90년대에 활성화되었다(Furstenberg, 2000).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빈곤이 집중된 도시의 하위계층에 대해 다수준분석(multi level analysis)을 이용해 지역사회의 영향력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분석결과 지역사회 요인은 단독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으나, 개인요인과 결합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urstenberg, 2000).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개인-가정-학교-지역사회요인들은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각각의 요인들 간 상호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완전한 개별적 개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집단 또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영향력은 집단 자체의 영향력을 무시한 채 보게 되면 오류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집단의 영향력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정진성, 홍성욱, 이가을, 2015).

기존 연구에서 지역사회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다른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 내 시민성 수준은 청소년 비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atti, Trambly & Larocque, 2003). 이탈리아 내 도시들의 시민성 수준과 해당 지역에서의 청소년 비행 발생여부 간 관계를 검증한 결과, 시민성 수준은 지역 내 사회자본 수준을 높여, 비행발생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 내 유대감이 높은 공동체에 속한 청소년들이 비행이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스스로 느끼는 죄책감이 더 크기 때문에 비행이 감소한다고 본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 사회자본 수준은 지역 내에서 청소년의 친사회적, 반사회적 행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지역사회 내 유해환경 등의 사회해체수준이 높을수록 지역 내 범죄율, 낮은 사회통제 등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범죄율, 유해환경 등의 위험요인이 커질수록 비행 및 청소년의 폭력비행에 영향을 미

친다(Zimmerman & Messner, 2011). 정진성(2009)은 지역사회 해체수준이 높을수록 학교폭력이 증가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결과를 미뤄볼 때,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요인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높아져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요인들의 영향에 대해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포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또한 지역사회요인은 대부분 청소년이 아닌 성인의 특징을 측정한다. 예를 들면 소득수준, 지역 주민 참여도 등은 청소년들이 아닌 부모들의 행동특성을 측정한 변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을 대상으로는 다양하게 이뤄진 지역사회 연구가 청소년들의 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으로서는 드물게 다루어져 왔다. 특히 지역사회요인은 청소년의 행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부모나, 학교 등의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적게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요인이 지역 내 성인들의 건강수준, 범죄율,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형용, 2010; 정민수, 조병희, 2007; 고정은, 이선헤, 2012)로 미뤄볼 때, 청소년들도 지역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성인들에 의해 구성된 지역사회요인들이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청소년도 성인과 동등하게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며, 공간 내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폭력문제 등 역시 지역사회의 영향력 하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예방 및 효과적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의 특성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청소년에게 적합한 이론적 틀을 가지고 성인과는 다른 영향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달심리학자인 브론펜브레너(Urie Bronfenbrenner)¹⁾의 생태학적 심리이론을 주이론(main theory)으로 하고, 기존 연구에서

1) 그는 생태학적 발달이론에 대해 평생 연구하였으며, 그의 연구업적은 미국에서 Head

지역사회 변인들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자주 활용되는 사회해체 및 사회자본 이론을 지역사회 변인들을 설명하는 보조적인 이론(sub theory)으로 활용하여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요인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는 생태학적 발달이론을 제시하며 건강한 발달을 위한 환경적, 사회적 영향력에 주목하였다. 그는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미시체계(micro system), 중간체계(meso system), 외체계(exo system), 거시체계(macro system)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가 이러한 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힘썼다는 점이다. 개인과 가정, 가정과 지역사회, 지역사회와 국가 등의 관계로부터 오는 시너지가 바로 건강한 아동발달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관점은 현재의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간의 협력관계를 통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여 주기 때문이다.

먼저 브론펜브레너의 관점에서 미시체계에 해당하는 개인요인의 개인적 특성 중 학교폭력과 관련 있는 변수를 살펴보면, 주로 자아존중감(임신일, 이정미, 2013), 공격성(조영일, 2013) 등의 영향력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특성은 가정 내에서의 부모의 양육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방임적이지 않고, 학대 수준이 낮을 때, 개인적 변수인 자아존중감, 공격성, 자기통제력 등의 긍정적인 발달을 이룰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미시적 수준에서는 학교수준의 변수인 학습태도, 교사관계, 교우관계 등도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진희, 김현주, 2015).

위에서 볼 수 있듯 개인, 가정, 학교변인의 영향력은 생태학적 이론의 관점이라고 해서 크게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생태

Start(헤드스타트, 1964년 시작) 프로그램을 통해 취학 전 빈곤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는 계기로 활용되었다. 약 5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이론에 대한 영향력은 다양한 분야에 미치고 있다.

학적 이론이 기존 연구와의 차별이 있는 점은 집단 속의 개인에 좀 더 관심을 두었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개개인의 차이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각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개인의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 집단적인 특성을 평균화하여 표집하거나, 주요 변수가 아닌 통제 변수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 브론펜브레너의 관점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이와 같은 집단 간의 차이를 강조하는 생태학적 이론의 특성이 학교폭력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생태학적 이론이 개인-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는 점은 기존 연구의 관점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해준다.

그러나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이론은 지역사회 영향력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frame)은 제공하나, 어떤 지역사회요인이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부족하다. 이에 지역사회의 영향력에 대해 다루고 있는 사회해체이론과 사회자본이론을 통해 보다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상세히 다룰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요인의 영향력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첫 번째로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을 활용하였다. 이 이론은 사회학자인 Shaw와 McKay에 의하여 제안되었는데, 사회구조적인 특징이 지역사회 해체를 발생시키고, 결과적으로 범죄를 유발한다고 설명한다(윤우석, 2010). Shaw와 McKay가 제시한 사회해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요인은 지역 내 빈곤율, 유해환경 여부, 인종적 이질성, 주거불안정성 등이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 내 구조적인 특성은 사회 내 통제수준을 악화시켜 지역 내 범죄율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사회자본이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변인을 설명할 수 있다. 사회자본이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각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본이 아니라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자본이다(유석춘, 장미혜, 2002).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사회자본이론의 종류는 주로 지역사회 애착 또는 지역사회 감독으로 측정되는데, 지역사회 애착은 청소년이 인식한 지역의 신뢰 및 통합정도이며, 지역사회 감독은 청소년이 인식한 지역 이웃주민들의 비공식 감독 정도이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지역사회

수준에서 형성되는 요인이지만, 지역 수준에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사회자본이 높으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지역사회요인과 개인요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기존 연구에서 종종 다뤄져 왔다. 지역 내 위험요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 또래 친구들의 비행율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인의 비행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Zimmerman & Messner, 2011). 또한 지역 내 빈곤수준이 높을 때,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 감독하지 않고, 무관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 비행의 발생수준을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진희, 이상록, 2011). 그러나 기존에 연구된 개인-지역 간 상호작용 효과는 학교폭력에 대한 영향력을 다루지 않았으며, 지역사회요인을 이론에 기초하여 체계화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국가수준에서 전국을 대표하는 자료로 측정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YCPS), 전국범죄피해조사, e-나라지표이다. 지역사회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실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지역사회요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실태를 반영한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생태학적 이론 등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학교폭력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과 지역사회요인 간 상호작용 효과에 주목한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개인요인을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지목해 왔다면, 본 연구는 기존의 통념과는 달리 학교폭력이 개인요인과 지역사회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에 기존 개인요인의 영향력에 배태되어 있던 지역사회요인의 영향력을 발견하고, 개인-지역 간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학교폭력 대처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제2절 연구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폭력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과 지역사회요인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학교폭력경험에 개인의 영향뿐 만 아니라 사회구조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은 성인에 비하여 이동거리가 짧으며, 청소년이 주로 시간을 보내는 학교환경이 지역사회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요인이 청소년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청소년의 학교폭력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요인의 상호작용효과를 파악하여, 지역사회와 청소년의 학교폭력경험 간의 관계를 밝혀내고자 한다. 또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요인을 고려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연구목적1. 중학생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자존감, 공격성), 가정 특성(방임, 학대), 학교 특성(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교규칙, 비행친구) 등 세 가지 특성이 청소년의 학교폭력경험(가해경험,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다.

연구목적 2. 중학생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가정 특성, 학교 특성이 지역의 사회해체요인과 지역 내 사회자본요인에 따라 학교폭력 경험유형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본다.

II. 이론적 배경

제1절 학교폭력의 개념과 연구동향

1.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의 명칭은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학교따돌림, 집단 괴롭힘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된다.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진 만큼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한데, 이를 정리하면 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특정한 행동이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을 신체적,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의 종류로서 정의하는 것이다(Rigby, 2003). 우리나라에서 주로 학교폭력을 통해 이뤄진 행동들을 살펴보면 셔틀(Shuttle)이라는 단어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 셔틀은 학교폭력의 일종으로, ‘가해 학생들의 강요에 의해 빵 또는 담배 등을 대신 사다주는 행위’이다(이승현, 2012). 요즘에는 자신의 부족한 스마트폰 데이터를 테더링 서비스를 통해 다른 친구로부터 빼앗는 ‘와이파이 셔틀’ 행위도 이뤄지고 있다. 이 외에도, 휴대폰 메신저를 이용한 단체 채팅방 괴롭힘 등이 있다.

두 번째는 피해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집합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해자-피해자 간 권력의 불균형, 피해자를 향한 가해자의 반복적인 부정적인 행동, 이유가 없이 지속하는 괴롭힘(Slee, 1995) 등의 행동 특성을 가진 행동들의 집합으로 학교폭력을 정의하는 것이다. 학교폭력 행동의 정의는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의 중 연구의 주제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의거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법은 정책을 담는 그릇²⁾이기 때문에, 정책에 필요한 관점 즉 패러다임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학

2)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introduction/majorFunctions>), 2015년 11월 30일 인출

교폭력 행위의 주체는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가해자까지 포함하는 본 연구의 특성상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와 학생이 저지르는 행위를 포함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학교폭력 행위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위의 정의에 나열된 행동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담겨 있으며, 정책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시사점은 법적 개념이 담긴 학교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때문에 학교폭력 예방 정책에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현상에 대해 피해자, 가해자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있는 최근 연구경향(김혜원, 임광규, 임동훈, 2013; 노연경, 홍세희, 2013; 이승연, 오인수, 이주연, 2014)과 같이 학교폭력의 역할을 세분화하여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학교폭력 관련 연구 동향

학교폭력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들이 학교생활 중에 호소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이다(Donnon & Hammond, 2007). 학교폭력을 발생시키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이 학교폭력 가해를 발생시키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지난 10년 간(2005년~2014년) 이뤄진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개인적 특성, 가정 특성, 학교 특성, 지역사회 요인 등의 네 가지로 분류된다. 선행연구의 변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권오명, 2005; 박진희, 김현주, 2015; 이병환, 2010; 임영식, 1998).

〈표 II -1〉 학교폭력 관련 변인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위험 행동	부모양육태도	학교분위기	유해환경
자기 통제력	가정폭력	학교 참여	개인주의
자존감	가족유대	교사 지지	집단주의
성별	교육수준	친구지지	
학업성취	부모의사소통	동조성	
공격성	가구소득	비행친구	

위의 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개인적 특성인 위험행동,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공격성 등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행동은 기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비행문제와 동시에 청소년 개인뿐 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대사회에 들어와 점차 연구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심각한 가족해체수준을 보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의 가정 특성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가정 내 폭력은 가정 특성 중 학교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서,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폭력의 대물림’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변인이다(김지연, 이인숙, 2008).

학교 특성의 경우 학교 분위기, 학교 참여, 교사지지 등의 변수가 주로 다뤄지고 있다. 학교환경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주요 공간적 배경뿐 만 아니라 학부모-교사-학생-학교행정담당자-지역사회 관계자 등의 다양한 주체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공간이다. 교사-학생 간 관계뿐 만 아니라, 교사와 교사 간의 관계, 교사-지역사회 간의 유대관계, 행정담당자와 학부모 및 교사와의 관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 문제를 학생 개인만의 요인으로 바라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특성

은 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업성취수준, 학교풍토 등의 영향력이 주로 다뤄져 왔다(박주형, 정성수, 2012). 특히 학교 분위기는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와 복합적인 영향력을 주고받는다. 학교분위기를 측정하는 변수는 예를 들면, 교원의 학생존중정도, 학교규칙의 공정성, 학교 내 안전에 대한 학생의 인지 등 다양한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변수들이다. 이처럼 학교는 개인, 가정, 지역사회요인 등과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장소이자,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학교 특성 중 친구관계 관련 변수는 동조성과 친구지지, 비행친구 등의 세 가지 요인과 학교폭력 가해행동과의 관계가 빈번하게 다뤄지고 있다. 친구 변수는 함께 어울리는 또래친구가 학교폭력 역할 유형 중, 가해성향을 보이는지 혹은 피해성향을 보이는지 여부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진다. 가해, 피해 양쪽 다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탈적 성향이 있는지(정자유, 2012),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방어자의 역할을 하는지, 혹은 가해자를 추종하며 함께 가해행동을 저지르는 동조자인지 여부(백민경, 2014) 등 친구요인의 영향력은 한 방향이 아닌 다양한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영향력은 자주 다루어지지 않는했으나, 개인주의적 신념이 강한 독일의 청소년과 집단주의적 특성이 있는 한국 청소년의 학교폭력 발생의 특성을 비교한 연구(김수정, 2005) 등이 이뤄져 왔으며, 지역사회 내 유해환경인 유흥업소 수나 무질서 수준의 영향력(윤옥경, 2008; 정자유, 2012) 역시 학교폭력 및 일탈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요인은 다른 요인과 비교하여 과소평가되고 있는데, 국내 연구 233편을 대상으로 주제를 분석한 결과 48.3%가 개인적 특성을 주제로 하고 있었으며, 주로 인성과 사회성을 각각 14.6%, 14.2% 다루고 있었다. 환경적인 변인은 대부분이 부모와 관련된 연구였으며, 사회의 영향력을 다룬 연구는 2.6%에 불과하였다(정옥분, 정순화, 김경은, 박연정, 2008). 실제 학교폭력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요인과 학교환경 등 지역적, 국가적 특수성 등의 사회구조적인 영향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위의 논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역 내 학

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상 지역 내 학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 내 성인들(ex) 학부모 등)과 학교 내 교사, 교직원 등과의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역사회 영향력은 왜 중요하며, 특히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과 지역사회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Arum(2000)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영향에 민감하게 변화하는 구조임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학생들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전통적 성인들의 규범과 맥락을 같이 할 것이라고 본다. 만약, 지역사회 내 성인들 간에 사회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제약과 감시가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지역 내 사회참여율이 낮은 경우, 학부모의 학교 행사 참여율이 낮으며, 결과적으로 학교 교사와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리하면, 학교와 지역사회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동일 선상에 있는 사회 구조적 맥락으로 보아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특성은 학교 내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며 더욱 정교한 메커니즘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황석규(2006)는 학교폭력 발생의 원인이 사회불평등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사회불평등이 발생시키는 다양한 요인들이 개인적 특성, 가정 내 부모자녀관계 등을 매개하여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는 단순한 소득불균형 수준이나 빈곤 수준이 학교폭력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Bronfenbrenner의 인간발달생태학과 같이 개인, 가정, 학교 특성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이다. 특히 그는 가족관계를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바라보았는데, 가정 내에서 구조화된 행동패턴(폭력, 애착수준) 등이 사회구조를 매개하여 개인의 행위인 학교폭력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실제 경험적 연구결과³⁾를 살펴보면 지역 내 빈곤수준은 주거환경과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해 청소년의 비행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3) 지역사회-학교폭력 간 기존 연구결과는 제3절- 4.학교폭력-지역사회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있으며(김진희, 이상록, 2011), 지역 내 유해환경 및 우범지역이 근거리에 있는 등 지역무질서 수준이 높을 때 부모의 양육태도를 매개하여 비행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수정, 2013).

그러나 위와 같이 기존의 개인과 가정 특성에 치중한 연구에 기초한 학교폭력 현상에 대한 예측 및 대처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현행 이뤄지고 있는 학교폭력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종합한 연구결과, 실제 효과에 있어 혼재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mith, Schneider, Smith & Ananiadou, 2004; Swearer, Espelage, Vaillancourt & Hymel, 2010; Wilson & Lipsey, 2007).

연구자들은 학교폭력 가해행동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낮은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현장의 높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빠르게 효과를 보이는 데 치중하거나(Swearer & Doll, 2001), 또는 해당 프로그램의 적용에 있어서 지역적, 환경적 맥락에 따른 영향력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시하고 있다(Higuaita-Gutiérrez & Cardona-Arias, 2015; Limber, 2011; Merrel, Gueldner, Ross & Isava, 2008; Smith et al., 2004).

그렇다면 국내의 상황은 어떠한가?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진행되고 있다(이희현, 2014). 어울림 프로그램은 정규 수업에 포함된 프로그램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학교폭력 현상이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 프로그램으로의 발전 과제를 안고 있다(곽윤정, 2014). 위의 국외, 국내 학교폭력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점에 근거하여 볼 때, 향후 학교폭력 관련 요인 중 사회적 요인에 관한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학교폭력 예방뿐 만 아니라, 학교폭력 발생 후 효과적인 대처 방안에 대한 연구가 동시에 필요하다. 학교폭력 예방에 초점을 둔 접근에서는 학교폭력이 왜 발생되는지 원인을 설명해줄 수 있는 가해자 특성을 밝히는 연구 방향이 유용할 수 있다. 같은 학교 내에서도 왜

어떤 학생들은 가해를 저지르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며, 원인적인 요인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학교폭력이 발생한 이후 대처 방안에 초점을 둔 접근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치유, 학교적응문제 등을 다루는 연구가 주로 이뤄진다. 어떤 학생이 주로 피해를 당하며, 또한 피해 학생의 심리적, 행동적인 결과에 대해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한지 등을 밝힘으로서, 피해대처방안을 밝히고 있다. 정리하면 학교폭력 발생에 대한 선제적 접근인 예방적인 접근과 함께, 사후적 접근인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접근이 이뤄져야 학교폭력의 지속적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연구동향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사회요인은 개인, 가정, 학교 특성 등과 동시에 살펴봐야 할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실제 실천적인 고려가 필요한 학교폭력 연구의 특성 상 현행 이뤄지고 있는 학교폭력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지역 및 사회구조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고려한 학교폭력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행동 및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학교폭력 가해행동뿐 만 아니라 학교폭력 피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도 함께 탐색하여, 전반적인 학교폭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제2절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개인요인

가. 개인적 특성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으로는 공격성, 개인통제력, 우울 및 불안 성향, 낮은 자아존중감 등이 있다. 그 중 가장 높은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공격성이다. 공격성은 생태학적 변인들을 함께 투입하여 가해학생을 예측하는 요인을 분석하더라도 학교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이상균, 1999). 가해행동을 보이는 아동의 경우 대인관계 패턴이 주도권을 잡고자 하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자 하고, 통제하는 것을 즐기는 등의 공격성이 높으며, 이러한 공격적인 대인관계 특성의 영향력은 청소년기까지 지속된다고 보고되고 있다(Jordan & Austin, 2012). 한편 피해학생들의 공격성 수준은 개인차가 있으며, 피해경험 이후에 더 적대적으로 또래친구와 관계를 맺거나 혹은 무기력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는 개인의 인지과정이 매개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홍상환, 이경연, 2013). 학교폭력의 발생이 대부분 지속적으로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피해학생의 경우 공격성 수준이 개인의 특성에 따라 높거나 낮은 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낮은 자아존중감 역시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원, 2009). 그러나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은 각 연구마다 일관적인 결과를 도출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신혜섭, 2005), 자아존중감이 높은 특성을 보이는 청소년이 오히려 가해행동을 보이지만 때로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이 자신의 손상된 자아를 보상받으려는 심리로 비행을 저지른다는 보고도 있다(Kaplan, 1980). 따라서 자아존중감의 경우 보다 다차원적으로 분류하여 영향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김하연, 오경자, 윤진(1991)은 자아존중감을 다차원적으로 분류하여 비행행동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업에 대한 자아개념은 낮으나, 또래 관계의 자아개념

은 높을 때 비행행동과 높은 연관성을 보인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존중감-가해경험 간의 관계는 자아존중감의 다양한 차원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관련성은 아직 명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해학생의 경우 지속적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인다는 특성을 보고하고 있다(김정원, 김광웅, 2003; Smith & Shu, 2000).

이 외에도 자기통제력 수준은 공격성을 통제할 수 있는 변인으로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다. 공격성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통제력의 부족은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구별 짓는 주요 행동 특성으로 나타난다(강승호, 1996). 이 외에도 다양한 개인적 특성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그 효과성이 검증된 변수들인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 가정 특성

가정 특성은 다른 사회적인 관계의 영향력보다,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정, 2005). 그만큼 1차적 사회적 집단으로 가정의 사회적 지지는 다른 사회적 지지체계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영향력이 있는 가정 관련 요인으로는 가정폭력, 가정폭력 목격, 가족형태, 부모양육특성, 부모애착 및 감독, 가정의 빈곤수준 등이 있다.

가정폭력 관련 요인들은 학교폭력과 높은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다뤄진 부의 교육 수준, 가족 구조인 양부모, 한부모 등의 영향력과 비교하여 가정폭력은 비행과 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혜섭, 2005). 또한 종단연구를 실시한 Dauvergne & Johnson(2001)은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할 때, 목격하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학교 내에서 싸움, 괴롭힘, 위협하기와 같은 폭력 양상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비신체적인 공격성인 언어적, 배재시키기와 같은 간접적인 폭력은 목격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두 배 정도 높게 보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으로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지 않아도 부부간의 폭력을 목격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에

연루될 수 있다는 위의 연구결과는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의 높은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Bowers, Smith, & Binney, 1994).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폭력 중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는 아동 학대이다. 아동학대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아동의 경우 학업부적응, 낮은 성취동기, 불안, 무능력 등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혜선, 2008). 가정 내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드러내는 변수는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애착 및 감독 등이 있다.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가해행동과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 형태가 권위적일수록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Baldry & Farrington, 2000), 부모의 양육태도가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거부적일 때에도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보고된다(최은숙, 채준호, 2000; Curtner-Smith, 2000; Olweus, 1997).

특히 청소년의 부정적인 행동결과에 밀접한 영향력이 있는 가정 특성 변수는 학대 및 방임 수준이다. 학대 수준의 경우 부부간 폭력보다 직접적인 폭력경험으로 인한 영향력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방임의 경우 거부적 양육태도 등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높은 학대 및 방임 수준의 결과는 가족 간의 친밀감이 결여되고, 불안정한 애착이 발생하여 학교폭력 피해를 당할 확률을 높였다(김선애, 2004).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부모의 방임적, 학대적 양육태도, 가정폭력 등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진희, 김현주, 2015).

한편, 가정의 빈곤수준은 지역의 다양한 요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Hay, Fortson, Hollist, Alzheimer & Schaible(2007)은 가정의 빈곤 수준과 지역사회 빈곤수준은 각각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하지만, 개인의 빈곤수준과 지역의 낮은 소득수준이 결합되면 비행에 더 강력한 영향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지역사회 내 비공식적 사회통제수준이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수준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지위비행 수준을 낮춘다는

보고(윤우석, 2010) 역시 가정요인과 지역사회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유대관계가 높을수록 지역 내 범죄를 목격하거나 겪게 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다. 비공식적 유대가 형성된 지역은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사회적 자본이 범법행위에 대한 신고율이나, 지역 내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선도에 대한 관심으로 측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루어볼 수 있다(정윤식, 2013). 따라서 가정 내 가정폭력이 발생되거나, 자녀에 대한 학대나 방임이 발생한 경우, 지역 내 비공식적 유대수준이 높을수록 이웃이 신고하거나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지역 내 비공식적 유대수준이 높을수록 가정 내 학대, 방임 등이 청소년의 비행 발생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부적응적이며, 부정적인 행동결과를 보일 수 있는 학대 및 방임 변수를 가족 특성의 주요 영향력으로 보고, 지역사회요인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다. 학교 특성

학교환경은 학생과 교사가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는 사회제도로서 교사와의 유대관계를 통해 학생들은 전통적인 규범에 순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며, 사회적으로 적응적인 행동을 습득하고, 모델링하게 되는 사회적 장으로 청소년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학교폭력 관련 연구에서는 학생의 개인 특성 및 가정 특성과 더불어 학교 환경 체계에 대한 탐색을 지속해왔으며, 학교분위기 개선을 통한 학교폭력 감소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김은영, 2008; 이상균, 1999). 학교 특성관련 연구는 첫째, 학교 적응력, 학교 내에서의 교사의 역할 등의 학교 내 개인적 특성을 다룬 연구와 둘째, 학교 내 조직의 특성인 학교 분위기, 폭력에 대한 태도 등으로 나뉜다.

먼저, 학교 특성을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교사에 대한 학생의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획득하게 되어 학생들은 낮은 수준의 부적응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rosnoe, Erickson & Dornbusch, 2002). 학교 내에서의 교사 역할의 중요성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졌는데, 교사의 감독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현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지지가 낮다고 지각한 청소년일수록 분노의 표출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선애, 2004).

학교규칙과 관련해서는 학교규칙이 강제적으로 집행될수록 학생들은 학교가 안전한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평한 학교규칙을 집행하기 위해 학교가 노력하고 있다고 인식할 때, 학생들은 학교가 안전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ong & Eamon, 2012). 학교 안전성의 경우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피부로 느끼는 환경적 요소로서, 학교안전성이 높을 경우 교내에서 낮은 폭력발생비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학교규칙이 공평하게 집행될 때, 학교 내 폭력발생비율을 줄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교우관계, 학습태도 등은 학교폭력경험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다. 학교 특성과 학교폭력경험 간에는 부적관계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김희수, 이재토, 홍성훈, 2006). 학교폭력경험은 일반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희수 등, 2006). 결과적으로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학교폭력 발생과 교우관계, 학습태도 변수들 간에는 부적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김희화(2001) 역시 학교폭력 가해, 피해 학생을 나누어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연구 결과 학교생활 적응 수준은 가해 피해 집단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차이점은 친한 친구의 지지정도로 나타났는데, 피해경험 집단과 비교하여 가해경험 집단의 친한 친구의 지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 특성 중에서 교우관계의 경우 가해경험 집단과는 정적인 관계, 피해경험 집단과는 부적적인 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비행친구는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청소년 비행에 예측하는 변수이다(Matsueda & Anderson, 1998). 지역 내 사회해체수준이 높아 청소년에

대한 통제 수준이 낮을 때, 비행은 저지르는 친구와 접촉이 잦아지고, 위험 행동을 자주 접하게 되어 각종 폭력 비행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Sampson & Laub, 1993). 한편 비행친구와 피해경험 간의 관계는 자주 다뤄지지는 않았으나,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해 및 피해수준을 함께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수, 2014; 정지원, 강정한, 2012). 한승희, 백지숙(2015)은 또래비행과 피해경험이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는데, 학교분위기, 집단화된 또래의 영향력 보다 또래의 비행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위에서 다뤄진 교우관계의 경우 주로 학교 내에서 맺는 또래 친구, 반 친구와의 관계성을 의미한다. 이와는 대비되는 변수로 비행친구 변수는 주로 비행을 저지르는 친구와의 관계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우관계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친구 관계라면, 비행친구의 경우 비행을 주로 저지르는 친구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우관계와 비행친구 변수는 각각의 측정 범위가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특성은 학교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또한 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과 학교 특성 간의 상호작용이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지역사회요인과의 상호작용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지역사회요인

가. 지역사회요인의 정의

지역사회란 무엇인가? 지역사회(communitiy)란 지리적으로 한정된 공간 안에 살면서 상호간에 그리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유대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한다(정지웅, 임상봉, 1999). 지역사회요인은 위와 같은 사람들로 구성된 지역사회 내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의미한다.

20세기 초, 도시화로 인한 범죄, 비행의 문제가 심각했던 미국사회에서는

도시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학자들의 노력이 지속되었다. 그 중 시카고학파의 Robert Park과 Ernest Burgess는 도시사회에 기반하여, 지역사회를 기업적 토지사용과 집을 짓기 위한 인구 집단 간의 경쟁의 결과로 발달되는 자연스러운 공간으로 바라보았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바라보면 지역사회란 사회의 한 구조이자, 사람과 제도가 공간을 소유한 하나의 집합이며, 환경, 문화, 정치적 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공간이다(Park, 1916, Sampson, Morenoff & Gannon-Rowley, 2002 재인용).

지역사회요인은 최근 사회복지학, 교육학, 보건학 등에서 주목받고 있는 요인이다(강현주, 2012; 도기봉, 2008; 정민수, 조병희, 2007). 신자유주의와 세계화(globalization)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의 범위가 확대되는 동시에 경쟁의 심화와 소득의 양극화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이로 인한 공동체의 분열과 파괴가 지역사회의 위기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지역사회 내의 건강, 교육 분야의 불평등의 심화는 지역 내 구성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청소년들의 교육과 성장에 있어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는 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 시기는 다른 세대보다 이동성이 낮고, 생활반경이 좁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영향이 다른 세대에 비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맥락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Logan, 2012).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수준만을 다룬 연구가 가진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 개인은 맥락에 둘러싸여 존재한다. 개인적 특성이 지역적 특성과 결합할 때, 더욱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이 된다(Hay et al., 2007). 따라서 맥락 속의 개인을 연구할 때, 더욱 풍부하게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역 수준의 대안을 발견할 수 있다. 개인요인만을 고려할 때에는 개인 수준에서의 문제 해결 접근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구조적인 문제인 학교폭력은 개인 수준 접근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교폭력이라

는 사회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대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대안이 나아가 집단적, 정치적 행동의 대안으로 발전할 수 있다(Logan & Molotoch, 1987). 학교폭력이 사회적 인 문제로 매우 자주 불거지지만 이에 대한 집단 및 정치적인 무관심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11년 대구에서 발생한 학생의 자살 사건은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지만, 시간이 지난 현재 그와 같은 관심이 정치적이고 집단적인 활동으로 연결이 되는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역 내 교육청, 학부모 등에게도 청구한 법원 판결⁴⁾ 등은 지역사회 수준의 적극적인 학교폭력 해결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Matsueda(2006)의 연구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하여 준다. 그는 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differential social organization theory)과 George Herbert Mead의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을 활용하여 지역 내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는 하나의 집단 혹은 조직 내에서의 유의미한 타인이 지닌 역할모델로서 가족, 학교, 교회, 자원봉사 기관들의 영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범죄 집단에 속해서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여러 이점보다 합법적 역할모델링이 가능한 집단들(학교, 교회 등)과 가까이 할 때 범죄에 대항하는 집단에 속하게 되고 결국, 이들로부터 지속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관점을 확대하여 생각해 보면, 지역사회의 성인과 교사, 가족 등의 유의미한 타인이 역할모델이 되어야,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행동을 배워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맥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 지역 내 성인들이 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대사회는 위험사회라고 할 만큼 개인 및 집단적 위기관리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다. 개인이 지역사회에 대해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4) 왕따당해 무너진 삶... “가해자 부모·교육청도 책임”(경인일보, 2015. 7. 22.)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98572>

만 하는 환경으로 인식할 때, 지역사회는 막연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반대로 개인이 지역사회에 대해 주체적으로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지역사회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환경이 아닌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 것임을 배우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해 학교폭력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요인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밝혀냄으로서 지역이 가질 수 있는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관리 및 통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요인은 아래 <표 II-2>에서 볼 수 있듯이 범죄율, 무질서율(강현주, 2012), 기초생활수급자비율, 순수인구이동률, 이혼율, 지역사회 유대(김창익, 윤우석, 2013), 지역 내 유흥업소의 수(진혜민, 배성우, 2012) 등으로 다양하게 측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정변수들이 나타내는 지역사회요인에 대한 명칭 역시 집합효율성, 환경, 생태학적 특성, 이웃특성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삶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의 지역 특성이라는 근본은 동일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명칭들을 ‘지역사회요인’이라고 통칭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관련 이론인 사회해체이론과 사회자본이론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요인을 재구성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지역사회요인의 영향력에 대한 관심은 기존 가정 및 개인요인에 머물러 있던 관점을 확장시킬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폭력이라는 사회문제 앞에서 지역 내 개인과 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내 집단들이 서로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된다면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적인 대처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공하여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표 II -2> 지역사회요인

변인	설명	출처
지역응집성	지역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가치 부여, 성인과의 친밀한 관계	Donnon & Hammond(2007)
집합효율성	집합효율성 - 비공식적, 사회통제, 주민 간 신뢰도	Sampson, Raudenbush & Earls(1997)
지역요인	지역 내 폭력 범죄 비율	Swearer, Peugh, Espalage, Siebecker, Kingsbury & Bevins(2006)
이웃 취약성 (neighborhood disadvantage)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 인구이동률, 거주불안정	Zimmerman & Messner(2010)
지역요인	지역 내 범죄율, 비공식적 유대, 무질서율	강현주(2012)
폭력 허용적 환경	폭력적인 방법에 대한 심리적 허용 정도	이상균(1999), 김경집(2005)
주거환경, 이웃환경	주거환경-주거 최소 기준 충족, 주관적 주거환경평가, 주택소유 여부, 이웃환경-이웃 유대감, 사회적 응집력, 비공식적 사회통제	김진희, 이상록(2011)
생태학적 특성	기초생활수급자비율, 순수인구 이동률, 이혼율, 지역사회 유대, 비공식적 사회통제	김창익, 윤우석(2013)
이웃환경	이웃 간의 통합정도	김광혁(2008)
지역요인	청소년 복지 관련 예산, 청소년지원센터 수	이재현(2007)
학교환경위험도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해 위험하다고 느끼는 정도	이해경, 김혜원(2000)
유해환경	지역 내 유흥업소의 수	진혜민, 배성우(2012)

나. 지역사회 관련 이론

1) 사회해체이론

기존에 지역적 맥락을 다룬 Burgess(1967)는 동심원 이론을 설명하며, 도시 성장이 사회 계층의 공간적 분화 과정에 의하여 다섯 개의 동심원으로 나누어지는 발전과정을 보여준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도시 외곽으로 갈수록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교외지역이 나타나며, 상업지구와 주택지구가 혼재된 지역에 범죄나 비행 발생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이후에 Shaw & McKay(1942)는 Burgess의 동심원 이론을 발전시켜 1927~1933년 시카고에서 발생한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도 역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형성된 공업 및 상업 지구에 많은 범죄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비행의 발생율이 줄어든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이 곧 사회해체이론으로써,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과, 거주이동성, 인종 등의 다양성 등이 사회 조직의 약화를 가져오고, 이것이 비행적인 하위문화를 생산하고, 결과적으로 특정 지역의 비행 발생의 수준을 높이게 된다고 보고 있다. 사회경제적 수준과, 거주이동성, 인종 등의 다양성 등의 특성을 지닌 지역은 낮은 사회적 지위를 생산하며, 사회 내에서 지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와 자원이 차단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사회해체이론은 이후에 수정된 사회해체이론으로서 다뤄지고 있다. 기존의 사회해체수준을 측정하는 변수가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높은 사회해체수준을 의미하는 지역 내 범죄율이 지역 내 높은 청소년 범죄율의 원인이라고 설명하는 등의 동어반복적 오류 및 생태학적 오류를 보이는 것으로 비판받았다(박성훈, 2011). 이후 Sampson et al.,(1997) 등은 지역 내 빈곤 수준, 높은 범죄발생율 등이 직접적으로 청소년 비행 발생율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중간과정으로서, 지역 내 조직 간의 유대관계가 약해져 지역 내 비공식적 통제수준이 약화되기 때문에 비행발생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수정된 이론을 제시하였다.

사회해체이론을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 무질서 변

수는 다양한 학교폭력 관련 변인과의 관련성이 보고되는 변수이다. 학교안전성 인식(Bowen & Van Dorn, 2002), 청소년의 학업성취(Bowen, Bowen & Ware, 2002), 비행(박수정, 2013) 등과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범죄율 역시 청소년의 지위 비행과 성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영지, 방은령, 박정선, 박경희, 2006).

사회해체요인은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 청소년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해체요인은 지역 내 비공식적 통제 수준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 내 빈곤수준, 지역 무질서 수준이 높을 때에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비행 등의 행위에 대한 비공식적 통제 수준을 약화시켜, 그 결과 범죄 및 비행의 발생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Sampson & Laub, 1993). 또한 하위문화 형성과도 관련성을 찾을 수 있는데, 사회해체요인이 높은 지역 내 학교에서 형성된 비행 하위문화의 영향이 가해경험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해체이론과 관련된 변수로서 집합효율성, 지역의 무질서 수준, 빈곤수준, 지역 내 범죄위험성 등을 투입하고자 한다. 수정된 사회해체이론에서 비롯된 집합효율성은 지역 내 상호간의 신뢰와 응집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문제해결에 참여하고자 하는 집합적인 노력을 의미한다(Sampson et al., 1997). 이웃 간에 통합이 이뤄지지 않고, 유대관계가 적은 지역사회의 경우 주변 사람들과 안면이 없거나, 적대적으로 인식하여, 문제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박정선, 2007; 박철현, 2012). 이에 맥락적 변수로서 사회해체이론에서 비롯된 변수인 ‘집합효율성’ 변수를 투입하고자 한다(장지현, 2013; 정진성, 2009). 또한 지역무질서 요소들의 영향력 역시 기존 연구에서 집합효율성과 더불어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서 빈곤수준, 지역무질서 수준, 범죄피해 두려움 변수(곽현근, 2008; 박우현, 이수정, 2013) 등을 함께 활용하여 왔으며, 그 영향력 역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투입하여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2) 사회자본이론

사회자본에서 네트워크나 사회유대는 중요한 요소로, 일정한 지역 내에서 이웃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신뢰, 호혜적 규범, 또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구성되는 네트워크를 의미한다(Putnam, 1993). 위에서 설명된 사회해체이론과 같이 사회자본이론도 사회구조적인 영향력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해체이론과의 차이점은 사회해체이론이 눈에 보이는 자원, 무질서한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사회자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요인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에게 사회자본이란 부모와의 관계, 또래, 교사, 지역의 어른들과의 관계를 통해 발생하는 신뢰, 제도 및 규범에 대한 존중, 유대감, 네트워크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사회자본은 개념적으로 존재하며, 자본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웃 간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한다(정윤식, 2013).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사회자본은 왜 중요한가? 첫째로 현대사회의 급속한 다원화, 경제 분야의 세계화 등이 초래하고 있는 사회 내 계층 간, 세대 간, 다양한 문화 및 가치관 간의 분열로 인해 연대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강수택, 2006). 이에 개인주의적인 지향을 공동체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자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둘째로 사회자본은 기회주의적 행동의 가능성이 높은 시장에서 거래비용을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사회자본은 경제자본, 인적자본, 문화자본과는 달리 사회적 자본은 이익이 공유되는 특성이 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과 사회자본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청소년의 발달적인 맥락에서 볼 때, 지역사회 내 형성된 사회자본 수준은 청소년의 대인관계 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최경옥, 2015).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행사나 다양한 사회사업 등을 통해 지역 내 성인들의 참여 및 유대감을 체감하는 것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기회를 갖게 되며, 이것을 기초로 하여 대인관계역량을 키우게 된다. 이러한 지역 내 형성된 사회자본 수준이 개인의 학교폭력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사회자본은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사회 애착, 지역사회 감독 등으로 측정된다. 지역사회 애착은 지역사회 내 신뢰 및 통합정도를 의미하며, 지역사회 감독은 지역 주민들의 비공식적 감독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변수는 ‘이웃유대감’ 변수(강현주, 2012; 최경옥, 2015)이다. 이웃 간 유대감이 높을수록 지역 내 신뢰 및 통합정도가 높으며, 비공식적 감독 수준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자본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웃 유대감’ 변수를 투입하여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다. 학교폭력-지역 사회 관계에 대한 연구 필요성

지역사회요인은 보건학, 사회복지학 등의 학문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제시되고 있는 주제이다. 보건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가 지역적 관점에서의 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김윤희, 조영태(2008)는 지역 내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키려는 노력과 건강과의 관계성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결론적으로 개인적인 행동보다 ‘자발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이 더 건강증진행동을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으며, 지역 내 보건의료 서비스와 같은 시설을 마련할 때, 지역 내 개개인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Kawachi, Kennedy & Glass, 1999; 김윤희, 조영태, 2008 재인용). 또한 보건학적인 관점에서, 취약계층을 바라보는 관점은 지역사회의 연구의 필요성을 반증해주고 있다. 취약계층은 만약 지역사회 내 위험요소가 산재하여 있을 경우 이러한 위험에 대한 인지 및 대처능력이 낮고, 건강 위험요소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Alwang, Siegel & Jorgensen, 2001). 성인에 대한 영향력은 곧장 그의 자녀인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울증 부모의 자녀들이 우울증의 걸릴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한 장은진, 서민정, 정철호(2001)의 보고가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자원이 부족한 취약집단의 경우 물리적 자원과 정서적 지지를 지

역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구축해 준다면 건강 수준 및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취약계층 내 청소년 집단 역시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지원이 건강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정리하면 보건학적 측면에서도 개인적인 대처방안보다 집단적인, 제도적인 대처방안이 더 효율적이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빠르게 줄 수 있다는 점이 지역사회 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취약계층으로서 청소년을 바라본다면, 지역사회의 영향력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에 대한 지역적인 지원 방안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관련 학문 분야인 사회복지학에서도 주의 깊게 지역사회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사회복지학 측면에서 거시적, 지역적 관점에서의 정책 방향이 필요한 이유는 사회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개인의 체험이나 가족요인과 같은 개별적 변수에 대한 접근보다 지역이라는 집단적 접근 단위가 통제가 쉽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강현주, 2012). 또한 효과적인 정책적 개입을 위해 한국의 사회적 특성이 내재된 지역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사회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정은, 2012).

실제적으로 지역사회요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성에 대해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Coie, Watt, West, Hawkins, Asarnow, Markman, Ramey, Shure & Long(1993)은 지역 내 위험요인을 줄이고, 개인의 강점을 강화하는 예방을 위한 전략으로, 개인, 가정, 학교, 또래, 지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Donnon & Hammond(2007)는 학교폭력 또는 지역 내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에게 레질리언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개인 수준의 레질리언스 강화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지역 내 유력한 성인들의 협력을 통한 집단 수준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Hawkins, Brown, Oesterle, Arthur, Abbott & Catalano(2008)는 청소년의 비행 및 유해약물 사용 감소를 위한 지역 특화적 프로그램(interventions tailored to a community's specific profile of risk and protection)을 실시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3년간의 추적조사 결과,

비행시작 비율이 통제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특징을 프로파일화하고,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에서 활동할 전문가들을 교육하는 등의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청소년들의 초기 비행 발생을 낮춘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요인의 영향력은 사회복지학 및 보건학 관련 연구분야에서 관심있게 다뤄진 주제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존연구에서도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지역사회요인을 활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제3절 개인-지역사회 간 상호작용 효과

1. 생태학적 이론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이론(Ecological-system theory)은 모든 개인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체계의 한 부분이며, 개인을 중심으로 한 모든 환경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바라본다. 생태학적 이론은 체계의 영향력만을 강조하여 개인적인 요인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체계와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생태학적 관점은 학교폭력이라는 개인적인 행위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바라보기 때문에 생태학적 이론은 사회적인 현상을 다루는 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생태학적 이론은 하나의 패러다임으로서, 학교폭력 현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생태학적 이론을 다룬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두 가지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한 가지 흐름은 실천적인 부분으로 환경보호, 생태계 유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일련의 사회적 운동 및 이념을 의미한다. 다른 한 가지는 사회적인 환경인 인구 구성적 특징과 개인 간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것에 초점을 두는 접근방법이다(곽춘옥, 2003). 후자의 관점은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경영학에서는 기업생태학 등이, 교육학에서도 학습생태학, 민속생태학 등의 접근이 이뤄지고 있으며, 문화생태학, 경제생태학 등 생태학적 관점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생태학적 이론은 이처럼 다방면의 학문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되어 광범위한 학문분야에 활용되는 패러다임이다. 본 연구는 후자의 생태학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사회적 환경과 개인 간의 상호 관계에 초점을 둔 생태학적 이론을 토대로 학교폭력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생태학적 이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인간의 발달과정은 다양한 층으로 구성된 환경적인 체계들 즉, 개인 및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체계들 간의 관계 및 체계 및 개인 간의 관계 역시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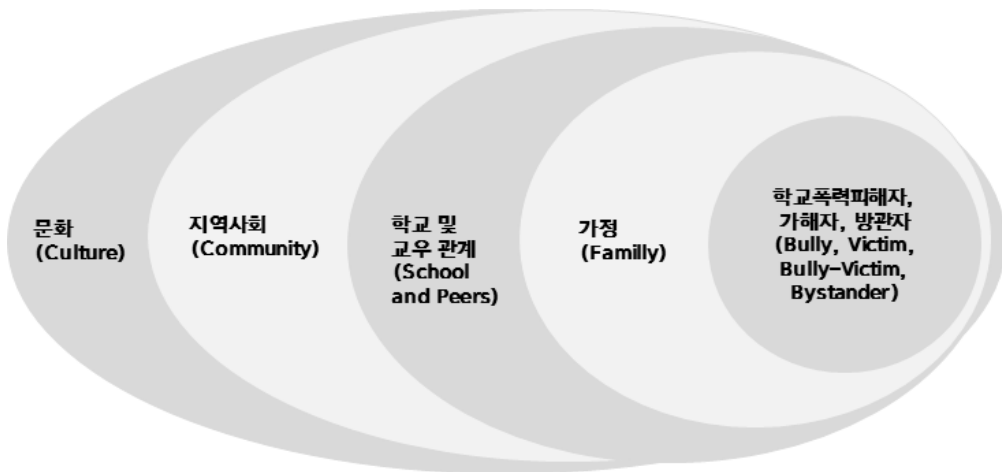
려해야 한다는 관점이다(Bronfenbrenner, 1979). 생태학적 이론을 활용해 광범위한 학교폭력 연구를 진행해 온 Swearer & Doll(2001)은 Bronfenbrenner(1979)의 이론을 토대로 Dishion & Patterson(1997)과 Lerner, Hess & Nits(1991)이 정리한 생태학적 이론을 활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생태학적 체계 내에서의 나타나는 위험하거나 보호적인 개인의 행동은 오로지 개인의 특성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생태학적으로 통합되어진 체계 내에서의 환경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개인과 그들의 환경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작동하여, 친사회적 혹은 반사회적 행동으로 발전하게 한다.”

즉 생태학적 이론의 특징은 개인 수준에서의 다양한 행동적 결과 또는 환경에 대한 반응의 원인이 개인 내에서만 유래한 것이 아닌 또는 맥락에서만 유래한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난 반응 및 결과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생태학적 이론은 개인요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Swearer & Doll, 2001). 환경적인 조건을 통제된 뒤 학교폭력 발생에 있어 개인 수준의 차이를 발견하는 다양한 연구는 학교폭력의 속성과 영향요인에 대한 풍부한 결과를 제공해주고 있다. 생태학적 이론은 그러한 개인요인의 영향력과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또래친구, 가정, 학교환경, 지역사회 등)에 관심이 있으며, 개인변인과 환경적 변인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렇다면 왜 학교폭력 현상을 생태학적 이론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첫째, 학교폭력 문제는 더 이상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전학년적이며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서,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뿐 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다양한 집단적인 특성 및 사회 환경적 특성, 및 집단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림 II-1] 생태학적 이론 모형 (Swearer & Doll, 2001)

둘째, 학교폭력의 영향력은 가, 피해자 등의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닌 주변 학생들을 비롯한 학교 내 공동체에 다양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내에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위기대처능력 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최지영, 2014).

셋째로 생태학적 이론은 다양한 변인들을 개인적 특성, 대인 간 상호관계, 가정환경, 학교환경 또는 지역사회의 특성 등과 같은 여러 단계로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작계는 또래와 가정, 교사와의 관계(micro system),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meso system), 또한 지역사회의 영향력(exo system) 등의 영향력을 구분하여 변수들의 명확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정종진,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생태학적 틀에 따라 개인행동과 환경의 상호작용 및 영향력에 대해 관심을 갖고자 한다.

먼저 생태학적 이론을 토대로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청소년의 긍정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Lerner & Galambos(1998)는 개인요인 세 가지와 맥락 요인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나이(Age), 학교급 및 학업기대(Expectations

for education and school grades), 전반적 행동(General behavior)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나이(age)는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서, 어떤 종류라도, 이른 시기에 시작한 위험행동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결과들로 인해 지속적으로 고통 받게 한다. 이에 언제 개입 하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두 번째는 학업에 대한 기대이다. 학업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받고 있는 청소년은 학업실패감을 겪는 청소년과 비교할 때, 위험행동을 할 경향이 적다. 세 번째는 전반적인 행동 요인이다. 적합하지 않은 행동들(과잉행동, 품행장애 등)은 위험행동과 관련이 깊다.

맥락적 요인으로는 먼저 또래의 영향력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적인 영향력은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비행친구가 있는지 여부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로는 부모요인이다. 부모양육태도 중 권위적 또는 허용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높일 수 있다. 부모의 방임, 학대 수준 등도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로는 지역사회요인을 들 수 있다. 지역적 맥락은 위험을 실제화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 내 빈곤, 도시화, 높은 인구밀도 등은 위험행동이 발생하는 것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볼 때 생태학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위와 같은 개인, 맥락적 요인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맥락적 요인 중 지역사회요인은 다른 요인들과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학자들은 이미 이러한 영향력을 지닌 지역사회요인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전학열, 최중진, 김청송, 2015; Bowen & Van Dorn, 2002; Espelage, Bosworth & Simon, 2000; Hong et al., 2011; Laub & Lauritsen, 1998). Hong et al.(2011)은 학교 안전성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요인인 개인, 가정, 학교, 이웃변수를 투입하여 검증하였다. 학교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학교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고 스스로 느끼는지 여부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학생이 학교 안에서 폭력이나, 범죄, 약물, 흡연 등으로 인한 위험을 느끼고 있는지와 밀접한 연관을 맺는

요소이다. 분석결과 지역사회가 안전하다고 인식할수록 학교도 역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자체가 지역사회 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내 범죄율, 빈곤율 등과 학교안전성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Laub & Lauritsen, 1998).

또한 지역 내 성인들 간의 사회적 유대관계 수준은 지역 내 청소년 범죄 발생율과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Sampson & Laub, 1993), 이는 청소년의 주변 환경에 위치한 공식적인 통제기관들(파출소, 법원 등), 비공식적 통제기관(지역 기관, 이웃 성인 등)이 청소년의 학교폭력 행동의 발생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임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생태학적 요인은 Hong et al.,(2011)이 제시한 모형을 참고로 구성하였다. Hong et al.,(2011)은 학교안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요소를 검증하였다. 먼저 개인특성으로는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인종, 성별), 가족특성(빈곤, 사회경제적 수준)으로 구성하였다. 개인을 둘러싼 미시체계(micro system)로는 부모자녀관계, 학교특성(교사관계) 등으로 구성하였다. 즉 미시적 체계는 주로 즉각적으로 상호교류를 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중간체계(meso system)로는 두 개 이상의 미시체계(micro system) 간의 관계를 측정하였다. 중간체계는 생태적 환경에 속한 다양한 주체들 즉, 교사, 또래, 부모 간의 사회적 상호관계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학부모의 학교 참여수준 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외체계(exo system)는 공식적, 비공식적 구조는 근본적으로 개인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예를 들면 이웃특성(neighborhood characteristic), 지역 내 폭력범죄수준, 무질서 수준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모델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개인요인, 지역사회요인, 개인-지역 간 상호작용 요인으로 예측변수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예측변수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3〉 학교폭력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수의 구성

개인요인	지역사회요인	상호작용
<p>개인적 특성 (자아존중감, 공격성)</p> <p>가정 특성 (학대, 방임수준),</p> <p>학교 특성 (교사관계, 학습태도, 학교규칙, 교우관계, 비행친구)</p>	<p>사회해체요인 (집합효율성, 지역무질서, 소득수준, 지역 내 범죄위험성, 기초생활수급자비율)</p> <p>사회자본요인 (이웃유대감)</p>	<p>개인*지역사회 (사회해체, 사회자본)</p> <p>가정*지역사회 (사회해체, 사회자본)</p> <p>학교*지역사회 (사회해체, 사회자본)</p>

2. 개인-지역사회 간 상호작용 효과

가. 개인-지역 간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많은 연구자들은 청소년이 발달상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요인 또는 위험요인을 밝히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위험요인의 하나인 지역의 구조적 특성과 개인의 폭력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위험요인에 비해 연구가 드물게 이뤄져 왔다(Roth & Reiss, 1993). 그 원인은 개별 변인의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높은 연구경향으로 인해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간의 긴밀한 관계성을 강조하는 복합적인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회정책 관계자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었다(Tomison & Wise, 1999). 미국의 아동위원회(US National Commission on Children)는 지역사회 내 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의 기초가 공동체의식의 향상과 지역 내 비공식적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다는 관점을 토대로 지역사회에 기초한 정책을 펼쳐왔다. 예를 들면 지역 내 one-stop 센터 등을 설립하여 지역에서 취약한 아동 및 가정에 대해 사회적 지원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정책현장에서의 요구에 비해 연구 기반이 비교적 견고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 간의 협력은 지역 내 다양한 사회서비스기관이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탁월한 프로그램, 인력, 예산 등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가정, 학교 및 다양한 기관들의 협조가 없이는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내 청소년 폭력예방에 대한 접근을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개입이 동반되어야, 폭력 감소 및 예방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Howell & Bilchik, 1995). 이에 개인-지역사회 간 상호작용을 다른 연구들의 현황과 성과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 개인-지역 간 상호작용에 대한 선행연구

지역의 맥락적 특성은 개인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 지역사회요인의 영향력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역-개인 간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쉽게 발견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과거 연구를 살펴보면 지역사회요인은 개인의 다양한 특성 형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꾸준히 밝혀지고 있다(Cantillion, 2006; Deutsch, Crockett, Wolff & Russell,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학교폭력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의 영향력(개인적 특성, 가정특성, 학교특성)과 지역사회요인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의 심리적, 정신적 특성은 지역사회요인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잉행동장애, 불안 등의 증세를 가진 청소년들은 지역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역 내의 주거가 불안정하여 거주민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지역 내 이주민의 비율이 높을수록 과잉행동 및 불안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지역 내 갭단에 가입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Dupéré, Lacourse, Willms, Vitaro & Tremblay, 2007).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 역시 지역의 영향력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낮은 청소년들과 비교하여 지역의 폭력허용수준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여 학교폭력경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기봉, 2008).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에는 부모의 양육특성도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와 지역사회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다룬 연구들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창익(2013)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고 관여하는 부모의 행동인 부모감독이 자녀의 비행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특성이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지역 내 주민 간 유대 수준에

따라 부모감독수준의 비행에 대한 영향력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진희, 이상록(2011)은 빈곤수준이 높은 지역사회 내에서 부모양육행동을 매개하여 청소년 비행의 발생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지역사회요인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자녀의 학교폭력경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지역사회요인의 영향력과 부모양육태도 사이에 무엇이 작용하여 위와 같은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것일까? 이는 지역 내 유대관계 수준이 높을수록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과 지역 내 청소년에 대한 공동체적인 관심과 지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역사회의 사회적지지 수준은 부모의 양육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Earls, McGuire & Shay, 1994; Simons, Simons, Burt, Brody & Cutrona, 2005).

학교 특성은 개인요인과 함께 상호작용을 통해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학교 특성은 지역환경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Hong et al., 2011; Laub & Lauritsen, 1998) 상호간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시도가 필요하다. 학교 특성과 관련된 변인으로 비행친구와의 관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역적 맥락특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위험수준이 높을수록 또래의 비행에 대한 노출을 심화시키며, 그 결과 개인의 비행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immerman & Messner, 2011).

위와 같이 개인 및 가정 특성이 학교 또는 지역사회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학교폭력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한 연구는 종종 이뤄져 왔으나, 중요성과 필요성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개인요인과 지역사회요인 간의 보다 상세한 상호작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관련 요인을 개인적 특성과 가정, 학교 등으로 세분화시키고, 지역사회요인 역시 사회해체 및 사회자본 이론을 기초로 하여 세분화하여 더욱 정교한 개인-지역사회 간 상호작용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

다. 개인-지역 간 상호작용 효과를 활용한 정책적 접근

맥락수준의 변화를 통해 교육성과 향상을 꾀한 프로그램들을 정리한 DeLuca & Dayton(2009)의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요인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적 접근의 효과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Gautreaux 프로그램, MTO(Move to Opportunity), Yonkers 등)의 효과성과 한계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Gautreaux 프로그램의 경우 이웃을 변경하는 프로그램⁵⁾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시 결과, 초반에는 사회적으로 소속감이 잠시 단절되고, 학교적응이 필요하지만, 교육적 효과가 향상되는 결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 해당 연구에서는 사회해체수준이 높은 도심지역에서, 비공식적 유대수준이 높은 교외지역으로의 이동은 부모에게도 안정된 일자리가 제공되고, 아이들 역시 안전한 지역에서 비행행동 등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회적 맥락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친 영향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체포율이 42% 낮아졌으며, 약물사용으로 인한 기소율을 52% 낮추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맥락의 변화는 도심지역에서 소외받았던 계층으로 하여금 교외지역으로의 이동을 통한 사회적 유대감을 향상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유대감의 형성은 이웃에 대한 신뢰 수준을 높이기 때문에 만약 자신의 아이가 학교적응 또는 문제행동 등의 어려움을 겪을 때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맥락을 형성한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사회적 맥락은 자녀인 청소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지역사회 맥락의 변화가 각 가정의 변화로 이어지고, 이것이 자녀들의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MTO 프로그램은 장기적인 추후조사결과, 성과가 지속되지 않는 지역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재된 결과를 보이는 이유는 지역사회

5) 바우처를 통해 도심지역에서 교외지역으로의 이동을 지원함

맥락만의 변화는 한계가 존재하였기 때문이었다. 아동이 이동한 지역에 있는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한이 생겨 접근이 어려웠으며, 부모 역시 아동의 교육환경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기존의 학교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부모도 있었다. 또한 상당수의 부모가 이미 약물중독, 우울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결과를 얻기 어려웠다.

MTO 프로그램의 추후조사결과는 지역사회 맥락만 변화해서는 전반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개인, 가정, 학교에 대해 지역사회가 장기적으로 뒷받침해야 함을 볼 수 있다. 이에 지역사회 변수의 영향력은 개인, 가정, 학교 등의 변수 간의 상호적인 영향력을 살펴보아야 함을 알 수 있다.

제4절 연구문제와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중학생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자존감, 공격성), 가정 특성(방임, 학대), 학교 특성(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교규칙, 비행친구) 등 세 가지의 개인요인은 청소년의 학교폭력경험(가해경험, 피해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표 II-4〉 연구문제 1-가설

가설		
1-1. 중학생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 학교폭력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피해	1-1-1.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피해를 경험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1-1-2. 청소년의 공격성이 낮을수록 피해를 경험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가해	1-1-3.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을수록 가해경험을 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1-1-4. 청소년의 공격성이 높을수록 가해경험을 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1-2. 중학생 청소년의 가정 특성이 학교폭력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피해	1-2-1. 청소년의 가정 내 학대 및 방임 수준이 높을수록 피해를 경험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가해	1-2-2. 청소년의 가정 내 학대 및 방임 수준이 높을수록 가해경험을 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1-3. 중학생 청소년의 학교 특성이 학교폭력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피해	1-3-1. 청소년의 학교 내 적응 수준(학교 특성)이 높을수록 피해를 경험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가해	1-3-2. 청소년의 학교 내 적응 수준(학교 특성)이 높을수록 가해경험을 할 확률이 낮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중학생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가정 특성, 학교 특성은 지역사회요인의 특성에 따라 학교폭력경험유형에 어떤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는가?

〈표 II -5〉 연구문제 2-가설

가설		
2-1. 중학생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은 거주지역의 사회해체요인에 따라 학교폭력 경험유형에 상호작용을 통한 영향을 미치는가?	피해	2-1-1. 중학생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은 거주지역의 사회해체요인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상호작용을 통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해	2-1-2. 중학생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은 거주지역의 사회해체요인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상호작용을 통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 중학생 청소년의 가정 특성은 거주지역의 사회해체요인에 따라 학교폭력 경험유형에 상호작용을 통한 영향을 미치는가?	피해	2-5-1. 중학생 청소년의 가정 특성은 거주지역의 사회해체요인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상호작용을 통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해	2-5-2. 중학생 청소년의 가정 특성은 거주지역의 사회해체요인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상호작용을 통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6. 중학생 청소년의 가정 특성은 거주지역의 사회자본요인에 따라 학교폭력 경험유형에 상호작용을 통한 영향을 미치는가?	피해	2-6-1. 중학생 청소년의 가정 특성은 거주지역의 사회자본요인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상호작용을 통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해	2-6-2. 중학생 청소년의 가정 특성은 거주지역의 사회자본요인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상호작용을 통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중학생 청소년의 개인요인은 거주지역의 사회자본요인에 따라 학교폭력 경험유형에 상호작용을 통한 영향을 미치는가?	피해	2-2-1. 중학생 청소년의 개인요인은 거주지역의 사회자본요인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상호작용을 통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해	2-2-2. 중학생 청소년의 개인요인은 거주지역의 사회자본요인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상호작용을 통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중학생 청소년의 학교 특성은 거주지역의 사회해체요인에 따라 학교폭력 경험유형에 상호작용	피해	2-3-1. 중학생 청소년의 학교 특성은 거주지역의 사회해체요인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상호작용을 통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을 통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해	2-3-2. 중학생 청소년의 학교 특성은 거주지역의 사회해체요인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상호작용을 통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학생 청소년의 학교 특성은 거주지역의 사회 2-4. 자본요인에 따라 학교폭력경험유형에 상호작용을 통한 영향을 미치는가?	피해	2-4-1. 중학생 청소년의 학교 특성은 거주지역의 사회자본요인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상호작용을 통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해	2-4-2. 중학생 청소년의 학교 특성은 거주지역의 사회자본요인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상호작용을 통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방법

제1절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가정 특성, 학교 특성의 영향력을 알아보며, 각 요인의 영향력은 지역사회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학교폭력 경험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배태되어(nested)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행동이 각 집단의 특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점은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개인 수준의 영향력만으로는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같은 반 학생들, 혹은 같은 학교 내 학생들 간에는 집단 간 상관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집단 간(between variance) 상관관은 기존 다변량회귀분석을 통해서도 분석은 가능하지만, 여러 번 회귀식을 반복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모델이 복잡해질 수 있으며, 개인 수준과 집단 수준의 변인 간 상호작용에 대해서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강상진, 2016).

특히 다양하게 발생하는 청소년의 발달적인 문제들-흡연, 음주 등의 문제 행동, 학교폭력, 정신건강 문제 등-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환원하여 접근할 경우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에 대해 지나치게 과소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독립변수를 개인요인과 지역사회요인으로 나누어 종속변수에 각각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개인 및 지역사회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위계적일반화선형모형(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 분석방법으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연구는 20세기 중반에 이뤄진 일련의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들이 단순한 장소(place)에 집중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Logan, 2012). 단순

한 환경적인 조건으로서 도시 또는 농촌 환경에만 관심을 두었다는 것이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공간적인 개념(spatial thinking)을 다룰 수 있는 연구방법인 다수준 분석(multi level analysis)의 도입으로 점차 지역사회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적인 관심이 확대되었다(Logan, 2012). 공간적인 개념을 활용함으로써, 개인적 수준에 집중되었던 연구경향이 개인적 수준, 맥락적 수준까지 확장되어 사회현상이 연구됨으로서 풍부한 해석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지역사회 영향력을 다룬 연구는 세 가지 경향을 보인다. 첫째는 이웃특성 변수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이다. 둘째는 특정한 지역적 특성 하에 있는(nested) 표본을 통해 종속변수인 개인적인 수준의 특성을 연구하는 것이다. 즉 독립변인에 개인적 수준과 집합적인 수준이 모두 포함되어(구조와 과정 모두) 개인적인 수준의 특성을 연구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유사한 이웃특성의 수준을 가진 집단을 비교하여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두는 연구이다(Sampson et al., 2002).

본 연구는 위에 분류된 지역사회를 다룬 연구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위에 제시된 연구경향 중 두 번째인 개인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특징을 연구하는 경향에 가깝다. 연구의 초점은 개인 또는 지역사회 어느 한 지점에 두기 보다는 지역사회-개인 간 상호작용에 있다. 본래 HLM은 개인 간 분산(within variance), 집단 간 분산(between variance)에 관심을 두고,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 내에서 개인 간 분산을 명세화(classified)한 뒤, 집단 간 분산을 명세화(classified)하여 집단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자주 활용되는 연구방법이다. 그러나 HLM을 통해 분석할 수 있는 연구문제는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매우 다양하다(Raudenbush & Bryk, 2002). 첫째, 개인수준의 독립변수 설명을 정교화하여 효과의 추정을 향상시켜준다. 다시 말하면 HLM 분석을 하는 이유가 2수준의 변수들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1수준의 개인요인의 효과에 대해 보다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집단 내 개인 간의 분산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집단효과(random effect)를 제외한 개인요인의 순수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독립변수의 계수를 비교하여 개인효과 및 집단효과가 각각 얼마나 있는지 명세화할 수 있다. HLM 분석방법을 통해 발견해낼 수 있는 연구문제는 개인수준의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정교화하는 데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 수준의 변수보다 집단 수준의 변수에 좀 더 초점을 두고자 한다. 즉 개인 내 수준의 영향력에서 발생되고 있는 집단 수준 변수의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HLM 분석방법을 통해 개인수준의 독립변수의 영향력과 집단 수준의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각각 밝히게 된다면, 연구의 설명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인요인뿐 만 아니라 집단 수준의 영향력까지 관심을 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요인은 청소년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초점으로 두고 있는 생태학적 관점에 의하면 개인의 발달적인 결과는 개인요인에서만 비롯된 결과가 아닌, 개인적, 가정적, 학교 특성 및 지역사회요인들의 영향력과 상호작용을 통해 이뤄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집단 수준 변수로서 바라보는 지역사회요인은 청소년 개인의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기 보다는 다양한 사회화기관인 학교, 가정, 또래관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지역수준 변수는 청소년 개인으로부터 발생하기 보다는 성인으로부터 발생한다. 예를 들어 지역 내 이웃관계, 사회해체수준, 범죄율, 소득수준 등은 청소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모, 부모 외의 다른 성인, 이웃들의 특성으로부터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 보다는 청소년이 성인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각종 사회화 기관인 가정, 학교, 지역 등의 영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종합하면 지역사회요인은 청소년의 학교폭력경험여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개인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청소년의 행동적, 발달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립변인을 개인요인과 지역사회요인의 두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제시하며, 종속변수는 개인의 행동적 결과인 학교폭력 경험여부로 두고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제2절 자료수집

1. 자료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으로 표집되어 조사된 자료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YCPS), 전국범죄피해조사, e-나라지표 등을 활용하였다. 직접조사한 1차 자료가 아닌 2차 자료를 활용한 이유는 첫째, 전국수준에서 조사되고 공시된 공공자료이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자료라는 점이다. 둘째, 매년 연속적으로 조사가 안정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조사항목 등의 신뢰도, 타당도가 확보된 자료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전국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구 별 지역코드를 제공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른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요인의 변수특성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YCPS) 3차년도인 2012년도 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지역사회요인의 변수특성은 전국범죄피해조사, e-나라지표에서 활용하였다. 지역별 코드가 각각 시군구별로 제공되나, 코드명이 달라 지역명칭을 기준으로 코드를 통일시키는 작업 후에 활용하였다. 조사 특성에 따라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발생하였으나, 공통적으로 조사된 지역을 중심으로 자료를 활용하였다.

2.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이하 KYCPS)는 2010년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의 3개 패널로 구성된 종단조사이다. KYCPS의

특징은 동일 대상에 대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 7회에 걸쳐 조사를 반복하는 중다전망적패널설계(multiple point prospective panel design)라는 점이 있다. 또한 3개의 코호트를 대상으로 하는 중다패널설계(multiple panel design)방식이다. 패널조사의 가장 큰 단점이라면 표본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 KYCPS의 경우 데이터 가중치 설정을 통해서 표본이탈을 보정하고 있다. 모집단은 교육부의 전국 학교통계를 표집틀로 하여, 다단계층화집락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여 표집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3차 년도 중 1 표본이며, 표본의 크기는 2,259명이다(이종원 등, 2014). 3차 년도 자료를 활용한 이유는 본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가 가장 많이 측정되었기 때문이다.

3. 전국범죄피해조사

전국범죄피해조사는 2년 주기로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로서, 2009년 제1차 피해조사가 실시된 이후, 2011년에 2차 피해조사, 2013년에 3차 피해조사가 이뤄졌다. 조사의 목적은 2012년도에 발생한 주요범죄유형별 기초 피해를, 신고율 및 범죄로 인한 손실 비용 등을 조사하며, 범죄피해의 취약성을 설명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나타내며, 범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자료 DB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다(김은경, 황지태, 황의갑, 노성훈, 2013). 표집방법은 확률비례추출방법(PPS)에 의해 표본 조사구를 추출하고 추출된 조사구내에서 계통표집을 통해 10가구를 추출한다. 총 조사표본수는 총 6,300가구, 13,317명이며, 조사기간은 2013년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15일간 이뤄졌다. 조사 대상은 전국(제주도까지 포함) 14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지난 1년 동안의 범죄피해를 회고하는 방식으로 응답하기 때문에 조사 내용의 시점은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특성의 변수를 사용하며,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와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시, 군, 구 코

드를 이용해 코드를 통일한 뒤, 해당 지역의 개인 특성의 평균값을 지역수준의 값으로 사용한다. 지역사회요인의 평균값은 다시 정상분포화를 위해 표준화하여 사용하였다.

4. e-나라지표

시군구 별 인구수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을 조사하기 위해 먼저 정부 통계포털인 e-나라지표의 시군구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2012년도)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시군구별 인구수 통계자료(2012년도 12월 기준)를 활용하여 시군구 단위 인구를 조사한 뒤, 두 가지의 자료를 시군구 코드를 중심으로 병합하였다. 병합한 자료에서 인구 수준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을 계산하였다. 이상의 자료는 정상분포화하기 위해 표준화하여 사용하였다.

제3절 변인의 구성

1. 학교폭력 경험여부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학교폭력 경험여부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YPS)의 척도에서,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구성한 각각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가해경험은 6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심한 놀림이나 조롱하기’, ‘집단따돌림 시키기’, ‘심하게 때리기’, ‘협박하기’, ‘돈이나 물건 뺏기’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1년 간 경험 여부(1-있다, 0-없다)의 값을 합산한 뒤, 1회 이상 경험한 케이스를 1로 코딩하고, 경험이 없다고 나타난 케이스를 0으로 코딩하였다. 피해경험은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하기’, ‘집단 따돌림당하기’, ‘심하게 맞기’, ‘협박당하기’, ‘돈이나 물건 뺏기기’ 등의 다섯 개 문항의 경험여부를 합산한 뒤, 1회 이상 경험한 케이스를 1로 코딩하고, 경험이 없다고 나타난 케이스를 0으로 코딩하였다.

2. 개인요인

가. 개인적 특성

본 연구에서 측정되는 개인적 특성은 자아존중감, 공격성이다. 자아존중감의 측정은 고려대학교부설행동과학연구소(2000)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점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측정도구 중 2, 3, 6, 8, 9번 변수는 역으로 측정되어 변환하여 합산하였다. 공격성의 측정은 조봉환, 임경희(2003)가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인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나. 가정 특성

가정 특성은 방임, 학대 등의 변수로 측정된다. 방임과 학대는 각각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허묘연(2000), 김세원(2003)의 아동학대 문항을 참고하여 구성되었다. 부모감독, 방임, 학대 등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인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한다.

다. 학교 특성

학교 특성은 학교규칙, 학습활동, 교사관계, 교우관계, 비행친구로 구성된다. 학교규칙, 학습활동, 교사관계, 교우관계는 민병수(1991)가 제작한 학교생활 적응 척도를 이용하여 구성되었다. 이상의 변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인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한다. 비행친구의 측정은 친구 중에 '돈이나 물건을 뺏은 적이 있다' 등의 14개 변수로 측정하였다. 비행친구 수는 심하게 편포되어 정규성 가정을 위반하므로 비행친구수를 0명은 '0'으로, 1-10명은 '1'로, 11명 이상은 '2'로 리코드하여 사용하였다. 비행친구 변수의 값이 클수록 해당 비행친구의 비행에 대한 접촉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3. 지역사회요인

북미지역의 지역사회 연구에서는 주로 community block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김창익, 2013). community block은 약 15분 정도의 보행거리로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지리적 상황에 적용시켜보면 가장 작은 행정단위인 '동'수준과 비슷한 크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중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동'수준의 영향력보다는 보다 큰 '구'(광역시 단위), '시', '군'(중소도시 단위)로 확장하여 볼 수 있다. 이에 전국 시군자치구를 기준으로 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웃관계, 주변의 무질서한 환경, 지역 내 경찰활동 수준,

지역 내 가구소득 등으로 구성하였다. 기존의 지역사회와 관련된 논의된 내용 중, 사회해체이론과 사회자본 논의와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변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사회해체이론에서 강조하는 지역사회 무질서, 지역평균소득, 기초생활수급자비율, 지역 내 범죄위험성 수준을 측정하였다. 변수 측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 내 무질서는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과 관련된 5점 척도 6개 문항을 합하여 측정하였다($\alpha=.818$). 사회적 무질서는 기초질서 위반 등 무질서 행위와 관련된 5점 척도 3문항으로 측정한다. 물리적 무질서는 지역 내 어둡고, 빈 공터가 있는지, 곳곳에 범죄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지역평균소득(Hay et al., 2007)은 월 평균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월 평균 100만원 미만(1)에서 월 평균 1,000만원 이상을 측정도구로 활용하였다. 사회자본이론에서의 주민 간 유대정도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지, 서로 잘 지내는 편인지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된 7가지 문항 척도를 사용하였다($\alpha=.839$). 지역 내 범죄위험성은 실제 해당 범죄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을 측정하였고, 사기, 절도, 폭행, 스토킹, 자택 침입 등 구체적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alpha=.943$). 이상 범죄피해조사에서 조사된 자료는 전국 시군자치구 단위로 평균을 산출하여 지역사회요인(level-2) 변수로 활용하였다.

기초생활수급 인구비율은 e-나라지표(www.index.go.kr)에 공개된 2012년도 시, 군, 구별 기초생활수급자 수 데이터와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공개된 2012년도 시군구별 인구 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체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인구 비율을 계산한 뒤, 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시군구 코드와 병합하여 지역사회 수준의 변수를 구성하였다.

<표 III-1> 측정변인

	구분		문항수	신뢰도	문항출처	데이터셋 (2012년도)
종속 변인	피해경험		6	-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문항 중 학교폭력예방법에 의거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한 측정도구 사용	청소년패널
	가해경험		5	-		
	무경험		-	-		
독립 변인	개 인 적 특 성	자아존중감	10	.816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 연구소(2000)의 문항 사용	청소년패널
		공격성	6	.811	조봉환, 임경희(2003)	청소년패널
	가 정 특 성	방임	4	.757	허묘연(2000), 김세원(2003) 의 아동학대 문항을 참고하 여 구성	청소년패널
		학대	4	.854	허묘연(2000), 김세원(2003) 의 아동학대 문항을 참고하 여 구성	청소년패널
	학 교 특 성	학교규칙	5	.790	문선모(1977), 이상필(1990) 의 척도를 참고하여 민병수 (1991)가 제작한 학교생활 적응 척도 중 학교행사 관련 문항(5문항)을 제외하고 구성	청소년패널
		학습활동	5	.745		
		교사관계	5	.847		
		교우관계	5	.583		
		비행친구	14	-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문항 사용	
	지 역 사 회 요 인	기초생활 수급비율	1	-	시, 군, 구 인구 대비 기초생활 수급자 수(%)	e-나라지표
		이웃유대감	4	.908	이웃 간 서로 맺은 관계성의 정도와 지역 내 상황에 대한 공유정도를 측정함	범죄피해
		집합효율성	3	.639	지역 내 상호간의 신뢰와 응집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문제해결에 참여하고자 하는 집합적인 노력을 의미함(Sampson et al., 1999)	범죄피해
		지역사회 무질서	6	.818	물리적 무질서 3문항과 사회적 무질서 3문항으로 구성	범죄피해
		지역 내 범죄위험성	8	.943	지역 내에서 절도, 폭행, 가택침입, 협박 등의 범죄를 실제로 당할 것 같은 두려움 측정	범죄피해
		지역평균 소득	1	-	월평균 100만원 미만(1) ~ 월 평균 1,000만원 이상(9)	범죄피해

제4절 분석방법

1. 위계적일반화선형모형(HGLM)

분석방법은 HGLM(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위계적일반화선형모형)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HGLM 분석방법은 개인 및 지역사회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이를 층위 간 상호작용 효과(Cross-Level Interaction Effect)라고 하며, HGLM을 통해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사회구조적인 영향력과 개인변인 간의 관계성을 더욱 정교하게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위계적일반화선형모형(HGLM)은 GLMM(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으로 불리거나(Breslow & Clayton, 1993), 혹은 generalized linear models with random effects(Schall, 1991) 등의 용어로 명명되며, 이상의 용어는 모두 같은 형태의 분석을 의미한다(Raudenbush et al., 2003). 영국을 비롯한 유럽 지역에서는 다수준 분석(multi level model)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반 HLM(Hierarchical Linear Model)분석과 HGLM분석의 차이는 종속변수가 연속변수인가 아닌가의 여부이다. 종속변수의 분포가 연속변수에서 비롯된 정상분포가 아닐 때, 종속변수들의 분산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종속변수를 정상분포가 아닌 다른 분포를 적용하여 일반화 시킨 것이 HGLM 분석이다. 예를 들어 이항분포(0,1)를 보이는 종속변수를 분석할 때에는 베르누이(Bernoulli) 분포를 활용하여 종속변수를 일반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항분포뿐 만아니라 도수로 이뤄진 프아송 분포, 양의 값만을 가진 감마분포 등으로 일반화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한 학교폭력 중복경험, 피해경험, 가해경험, 무경험 변수는 베르누이 분포로서, 경험이 있는 것을 1, 경험이 없는 것을 0으로 측정하였으며, 종속변수의 분포를 로짓(logit)함수를 이용하여 변환하여 분석한다.

분석 프로그램으로는 HLM 7.0과 SPSS 21을 사용하였다. SPSS 21은 변수들의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등을 위해 활용하였으며, 통계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에서 조사된 자료들의 병합을 위해 활용하였다. HLM 7.0 프로그램은 사회 연구 및 기타 분야에서 계층적인 구조를 가진 데이터 연구를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으로서 선형 및 비선형 모델(또한 다중 모델)의 각 계층과 관련된 변화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하나의 분석에서 각 계층 간의 관계를 연구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⁶⁾. 이상의 분석을 위해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함께 활용하였다.

2. 분석모형

분석을 위한 모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1단계 기초모형을 통해 학교폭력경험여부가 지역사회요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일반 다중회귀분석이 아닌 HGLM분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한다. 타당성이 확인되면, 2단계 모형(unconditional model)을 통해 개인의 심리, 가정, 학교특성과 지역특성은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 모형(conditional model)을 통해 개인의 학교폭력경험여부의 가능성에 대해 개인요인 및 지역사회요인을 모두 투입한 뒤, 각각의 수준의 영향력을 상세히 살펴본 뒤,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투입 시에 개인수준의 모든 변수는 개별 집단의 평균에 대한 편차값을 갖도록 전환하는 집단 평균 교정법(group-mean centering)을 적용하였고, 지역수준의 변수들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의 편차값을 갖도록 전환하는 방법인 전체 평균 교정법(grand-mean centering)을 적용하였다(Raudenbush et al., 2002).

모형을 최대한 단순화시키기 위해, 종속변수가 1, 0으로 구성된 로짓모델(logit model) 2개로 모형을 구성하였다. model 1은 종속변수가 1일 때, 학교폭력 가해 경험을, 0일 때에는 가해가 아닐 때(피해, 무경험)를 의미하

6) <http://www.ssicentral.com/hlm/>

도록 구성하였다. model 2는 종속변수가 1일 때,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0일 때에는 피해가 아닐 때(가해, 무경험)를 의미하도록 구성하였다. 구축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표 III-2> 분석 모형 구성

단계		model 1 (가해경험 여부)	model 2 (피해경험 여부)
종속변인		1 = 가해 0 = 가해가 아닐 때(피해 또는 무경험)	1 = 피해 0 = 피해가 아닐 때(가해 또는 무경험)
독립변인 투입	1단계 (기초모형)	- level 1(개인요인) : 미투입 - level 2(지역사회요인) : 미투입	- level 1(개인요인) : 미투입 - level 2(지역사회요인) : 미투입
	2단계 (unconditional model)	- level 1(개인요인) : 전체투입 - level 2(지역사회요인) : 미투입	- level 1(개인요인) : 전체투입 - level 2(지역사회요인) : 미투입
	3단계 (conditional model)	- level 1(개인요인) : 전체투입 - level 2(지역사회요인) : 2단계에서 유의한 독립변수에 random effect로 투입	- level 1(개인요인) : 전체투입 - level 2(지역사회요인) : 2단계에서 유의한 독립변수에 random effect로 투입

가. 1단계 : 기초모형

<표 III-3> 기초모형

model 1 (가해경험(1) Vs 피해경험, 무경험(0)) model 2 (피해경험(1) Vs 가해경험, 무경험(0))	
Level-1 Model	
Level-1(Model 1)	Level-1(Model 2)
$\text{Prob}(\text{가해경험}_{ij}=1 \beta_j) = \phi_{ij}$ $\log[\phi_{ij}/(1 - \phi_{ij})] = \eta_{ij}$ $\eta_{ij} = \beta_{0j}$	$\text{Prob}(\text{피해경험}_{ij}=1 \beta_j) = \phi_{ij}$ $\log[\phi_{ij}/(1 - \phi_{ij})] = \eta_{ij}$ $\eta_{ij} = \beta_{0j}$
Level-2 Model	
$\beta_{0j} = \gamma_{00} + u_{0j}$	
1) γ_{00} = 고정효과 절편 추정치 2) u_{0j} = 무선효과 분산 추정치	
Mixed Model	
$\eta_{ij} = \gamma_{00} + u_{0ij}$	

나. 2단계 분석모형(unconditional model)

2단계 분석모형(unconditional model)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Prob(학교폭력경험여부 $_{ij}$ =1| β_j) = ϕ_{ij} 는 j지역의 i라는 개인의 가해 또는 피해 여부를 의미한다. β_{0j} 는 j개 지역의 평균적인 개인의 학교폭력경험 가능성을 의미한다. γ_{00} 는 지역수준의 무작위 효과인 u_{0j} 가 0일 때의 평균을 의미하며, u_{0j} 는 지역수준의 오차를 의미한다. 2단계 모형은 1단계 모형(기초 단계)을 기초로 하여 개인요인(1 수준) 변수만을 독립변수로 모형에 투입한 모형이다. 2단계 모형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에만 random effect를 보이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단계 모형에서 지역사회요인(2 수준)을 투입하였다.

<표 III-4> 2단계 분석모형

2 단 계	<p>< Level-1 개인 모형 ></p> <p> $\text{Prob}(\text{학교폭력경험}_{ij}=1 \beta_j) = \phi_{ij}$ $\log[\phi_{ij}/(1 - \phi_{ij})] = \eta_{ij}$ $\eta_{ij} = \beta_{0j} + \beta_{1j}*(\text{자아존중감}_{ij}) + \beta_{2j}*(\text{공격성}_{ij}) + \beta_{3j}*(\text{학대}_{ij})$ $+ \beta_{4j}*(\text{방임}_{ij}) + \beta_{5j}*(\text{학습태도}_{ij}) + \beta_{6j}*(\text{학교규칙}_{ij})$ $+ \beta_{7j}*(\text{교우관계}_{ij}) + \beta_{8j}*(\text{교사관계}_{ij}) + \beta_{9j}*(\text{비행친구}_{ij})$ </p> <p>< Level-2 지역 간 모형 ></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beta_{0j} = \gamma_{00} + u_{0j}$ $\beta_{1j} = \gamma_{10}$ $\beta_{2j} = \gamma_{20}$ $\beta_{3j} = \gamma_{30}$ $\beta_{4j} = \gamma_{40}$ </td><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beta_{5j} = \gamma_{50}$ $\beta_{6j} = \gamma_{60}$ $\beta_{7j} = \gamma_{70}$ $\beta_{8j} = \gamma_{80}$ $\beta_{9j} = \gamma_{90}$ </td></tr> </table> <p>< 통합(MIXED) 모형></p> $\eta_{ij} = \gamma_{00} + \gamma_{10}*\text{자아존중감}_{ij} + \gamma_{20}*\text{공격성}_{ij}$ $+ \gamma_{30}*\text{학대}_{ij} + \gamma_{40}*\text{방임}_{ij} + \gamma_{50}*\text{학습태도}_{ij}$ $+ \gamma_{60}*\text{학교규칙}_{ij} + \gamma_{70}*\text{교우관계}_{ij} + \gamma_{80}*\text{교사관계}_{ij}$ $+ \gamma_{90}*\text{비행친구}_{ij} + u_{0j}$	$\beta_{0j} = \gamma_{00} + u_{0j}$ $\beta_{1j} = \gamma_{10}$ $\beta_{2j} = \gamma_{20}$ $\beta_{3j} = \gamma_{30}$ $\beta_{4j} = \gamma_{40}$	$\beta_{5j} = \gamma_{50}$ $\beta_{6j} = \gamma_{60}$ $\beta_{7j} = \gamma_{70}$ $\beta_{8j} = \gamma_{80}$ $\beta_{9j} = \gamma_{90}$
$\beta_{0j} = \gamma_{00} + u_{0j}$ $\beta_{1j} = \gamma_{10}$ $\beta_{2j} = \gamma_{20}$ $\beta_{3j} = \gamma_{30}$ $\beta_{4j} = \gamma_{40}$	$\beta_{5j} = \gamma_{50}$ $\beta_{6j} = \gamma_{60}$ $\beta_{7j} = \gamma_{70}$ $\beta_{8j} = \gamma_{80}$ $\beta_{9j} = \gamma_{90}$		

다. 3단계(conditional model) 분석모형

3단계 모형(conditional model)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이 모형은 본 연구에서 실시하는 최종 분석 모형이다. 2단계에서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절편에 대해 무작위효과(random effect)를 고려할 뿐 만 아니라 개인의 특성에 따른 기울기에 대한 지역사회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한다. 다음의 표에서는 분석모형 예시를 제공한다.

<표 III-5> 3단계 분석모형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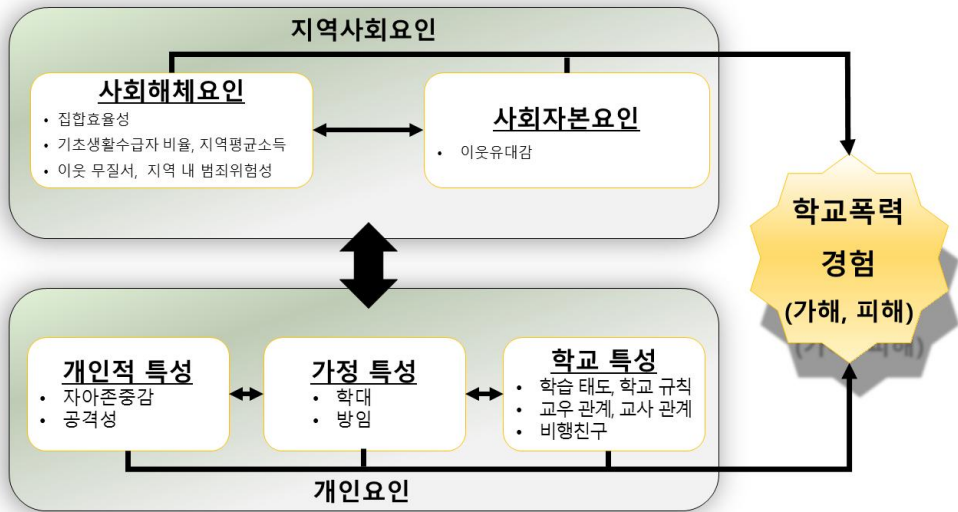
3 단 계	<div data-bbox="299 691 642 726" data-label="Section-Header"> <p>< Level-1 개인 모형 ></p> </div> <div data-bbox="299 736 735 770" data-label="Equation-Block"> $\text{Prob}(\text{학교폭력 경험여부}_{ij}=1 \beta) = \phi_{ij}$ </div> <div data-bbox="299 770 565 805" data-label="Equation-Block"> $\log[\phi_{ij}/(1 - \phi_{ij})] = \eta_{ij}$ </div> <div data-bbox="330 805 1009 929" data-label="Equation-Block"> $\begin{aligned} \eta_{ij} = & \beta_{0j} + \beta_{1j}*(\text{자아존중감}_{ij}) + \beta_{2j}*(\text{공격성}_{ij}) + \beta_{3j}*(\text{학대}_{ij}) \\ & + \beta_{4j}*(\text{방임}_{ij}) + \beta_{5j}*(\text{학습태도}_{ij}) + \beta_{6j}*(\text{학교규칙}_{ij}) \\ & + \beta_{7j}*(\text{교우관계}_{ij}) + \beta_{8j}*(\text{교사관계}_{ij}) + \beta_{9j}*(\text{비행친구}_{ij}) \end{aligned}$ </div> <div data-bbox="299 987 687 1022" data-label="Section-Header"> <p>< Level-2 지역 간 모형 ></p> </div> <div data-bbox="343 1037 1119 1116" data-label="Equation-Block"> $\begin{aligned} \beta_{0j} = & \gamma_{00} + \gamma_{01}*(\text{지역무질서}) + \gamma_{02}*(\text{이웃유대감}) + \gamma_{03}*(\text{지역평균소득}) \\ & + \gamma_{04}*(\text{지역 내 범죄위험성}) + \gamma_{05}*(\text{Z수급}) + \gamma_{06}*(\text{Z집합효율성}) + u_{0j} \end{aligned}$ </div> <div data-bbox="360 1118 470 1151" data-label="Equation-Block"> $\beta_{1j} = \gamma_{10}$ </div> <div data-bbox="360 1153 470 1186" data-label="Equation-Block"> $\beta_{2j} = \gamma_{20}$ </div> <div data-bbox="352 1186 1123 1265" data-label="Equation-Block"> $\begin{aligned} \beta_{3j} = & \gamma_{30} + \gamma_{31}*(\text{지역무질서}) + \gamma_{32}*(\text{이웃유대감}) + \gamma_{33}*(\text{지역평균소득}) \\ & + \gamma_{34}*(\text{지역 내 범죄위험성}) + \gamma_{35}*(\text{Z수급}) + \gamma_{36}*(\text{Z집합효율성}) \end{aligned}$ </div> <div data-bbox="360 1267 470 1300" data-label="Equation-Block"> $\beta_{4j} = \gamma_{40}$ </div> <div data-bbox="360 1302 470 1333" data-label="Equation-Block"> $\beta_{5j} = \gamma_{50}$ </div> <div data-bbox="360 1335 470 1367" data-label="Equation-Block"> $\beta_{6j} = \gamma_{60}$ </div> <div data-bbox="360 1369 470 1402" data-label="Equation-Block"> $\beta_{7j} = \gamma_{70}$ </div> <div data-bbox="360 1404 470 1437" data-label="Equation-Block"> $\beta_{8j} = \gamma_{80}$ </div> <div data-bbox="360 1452 470 1485" data-label="Equation-Block"> $\beta_{9j} = \gamma_{90}$ </div>
-------------	----------------------------------------------------------------------------------------------------------------------------------------------------------------------------------------------------------------------------------------------------------------------------------------------------------------------------------------------------------------------------------------------------------------------------------------------------------------------------------------------------------------------------------------------------------------------------------------------------------------------------------------------------------------------------------------------------------------------------------------------------------------------------------------------------------------------------------------------------------------------------------------------------------------------------------------------------------------------------------------------------------------------------------------------------------------------------------------------------------------------------------------------------------------------------------------------------------------------------------------------------------------------------------------------------------------------------------------------------------------------------------------------------------------------------------------------------------------------------------------------------------------------------------------------------------------------------------------------------------------------------------------------------------------------------------------------------------------------------------------------------------------------------------------------------------------------------------------------------------------------------------------------------------------------------------------------------------------------------------------------------------------------------------------------------------------------------------------------------------------------------------------------------------------------------------------------------------------------------------------------------------------------------------------------------------------------------------------------------------------------------------------------------------------------------------------------------------------------------------------------------------------------------------------------------------------------------------------------------------------------------------------------------------------------------------------------------------------------------------------------------------------------------

< 통합(MIXED) 모형 >

$$\begin{aligned}
 \eta_{ij} = & \gamma_{00} + \gamma_{01} * \text{지역무질서}_j + \gamma_{02} * \text{이웃유대감}_j + \gamma_{03} * \text{지역평균소득}_j \\
 & + \gamma_{04} * \text{지역내범죄위험성}_j + \gamma_{05} * \text{Z수급}_j + \gamma_{06} * (\text{Z집합효율성}_j) \\
 & + \gamma_{10} * \text{자아존중감}_{ij} \\
 & + \gamma_{20} * \text{공격성}_{ij} \\
 & + \gamma_{30} * \text{학대}_{ij} + \gamma_{31} * \text{지역무질서}_j * \text{학대}_{ij} \\
 & + \gamma_{32} * \text{이웃유대감}_j * \text{학대}_{ij} + \gamma_{33} * \text{지역평균소득}_j * \text{학대}_{ij} \\
 & + \gamma_{34} * \text{지역내범죄위험성}_j * \text{학대}_{ij} + \gamma_{35} * \text{Z수급}_j * \text{학대}_{ij} \\
 & + \gamma_{36} * \text{Z집합효율성}_j * \text{학대}_{ij} \\
 & + \gamma_{40} * \text{방임}_{ij} \\
 & + \gamma_{50} * \text{학습태도}_{ij} \\
 & + \gamma_{60} * \text{학교규칙}_{ij} \\
 & + \gamma_{70} * \text{교우관계}_{ij} \\
 & + \gamma_{80} * \text{교사관계}_{ij} \\
 & + \gamma_{90} * \text{비행친구}_{ij}
 \end{aligned}$$

※ 점선box의 경우 2단계에서 유의한 변수만, 즉 ‘학대’변수가 유의하였다면 3단계에서 지역사회 요인과 ‘학대’변수를 상호작용항으로 투입함

제5절 연구모형



[그림 Ⅲ-1] 연구모형

IV. 연구 결과

제1절 주요변수의 특징

1. 기술통계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를 보면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학교폭력경험의 경우 학교폭력 경험이 없다는 ‘무경험’ 응답이 가장 많은 2,069명(89.5%)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피해경험’이 있었다는 응답이 181명(7.83%), ‘가해경험’이 있었다는 응답이 105명(4.54%)으로 나타났다. 개인요인(level-1)은 개인적 특성, 가정 특성, 학교 특성으로 측정되었으며 각 변수의 특성은 아래의 표와 같다. 각 독립변수의 정규분포 여부를 p-p plot으로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대부분 정규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요인(level-2)은 사회자본요인과 사회해체요인 두 가지로 나누어 측정되었으며 편포가 심하여 변수 투입 시에는 Z-점수로 표준화하여 투입하였다.

<표 IV-1> 기술통계

특성	구분	관측 수(%)	평균(SD)	범위
성별	남	1,108(47.9%)	-	1~2
	여	1,112(48.1%)	-	
학교 폭력 경험	가해경험	105(4.54%)	-	-
	피해경험	181(7.83%)	-	
	무경험	2,069(89.5%)	-	
개인 요인 (level-1)	개인적 특성	자아존중감	2,220(100%) 21.78(4.59)	0~39
		공격성	2,220(100%) 16.78(3.62)	6~24
	가정 특성	방임	2,220(100%) 7.37(2.23)	0~16

특성	구분	관측 수(%)	평균(SD)	범위	
	학대	2,220(100%)	7.33(2.87)	4~16	
	학습활동	2,220(100%)	11.28(2.66)	5~20	
	학교규칙	2,220(100%)	10.68(2.69)	5~20	
	교사관계	2,220(100%)	10.56(3.14)	5~20	
	교우관계	2,220(100%)	9.62(1.97)	5~18	
	비행친구	2,207(100%)	.38(.641)	0~2	
지역 사회 요인 (level-2)	사회 자본요인	이웃유대감	147(100%)	21.00(2.72)	14.78~29.43
	사회 해체요인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146(100%)	3.17(1.49)	0.65~9.08
		집합효율성	146(100%)	10.09(0.86)	6.86~12.15
		지역 평균 소득	147(100%)	2.96(0.88)	1.43~6.40
		동네(이웃) 무질서	147(100%)	14.56(1.62)	10.58~18.40
		지역 내 범죄위험성	147(100%)	17.76(2.34)	9.52~24.23

2.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분석을 실시하기 전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가장 높은 상관계수가 .597로 나타났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없이 분석 투입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2> 학교폭력 피해경험-개인요인 간 상관관계 표(N=2,220)

	피해경험	자아 존중감	공격성	학대	방임	학습 태도	학교 규칙	교우 관계	교사 관계	비행 친구
피해경험	1									
자아존중감	.105**	1								
공격성	-.072**	-.351**	1							
학대	.069**	.248**	-.308**	1						
방임	.026	.320**	-.186**	.140**	1					
학습태도	.073**	.313**	-.245**	.172**	.265**	1				
학교규칙	.033	.181**	-.210**	.119**	.201**	.497**	1			
교우관계	.103**	.378**	-.263**	.192**	.271**	.418**	.385**	1		
교사관계	-.007	.223**	-.106**	.047*	.200**	.398**	.394**	.378**	1	
비행친구	.138**	.005	-.100**	.132**	.023	.132**	.156**	.009	.013	1

*p<0.05, **p>0.01, ***p>0.001

<표 IV-3> 학교폭력 가해경험-개인요인 간 상관관계 표(N=2,220)

	가해경험	자아 존중감	공격성	학대	방임	학습 태도	학교 규칙	교우 관계	교사 관계	비행 친구
가해경험	1									
자아존중감	.006	1								
공격성	-.071**	-.351**	1							
학대	.057**	.248**	-.308**	1						
방임	.023	.320**	-.186**	.140**	1					
학습태도	.085**	.313**	-.245**	.172**	.265**	1				
학교규칙	.126**	.181**	-.210**	.119**	.201**	.497**	1			
교우관계	.075**	.378**	-.263**	.192**	.271**	.418**	.385**	1		
교사관계	.050*	.223**	-.106**	.047*	.200**	.398**	.394**	.378**	1	
비행친구	.261**	.005	-.100**	.132**	.023	.132**	.156**	.009	.013	1

*p<0.05, **p>0.01, ***p>0.001

<표 IV-4> 지역사회요인의 변수 간 상관관계 표(N=146)

	지역 무질서	지역평균소득	지역 내 범죄위험성	기초생활 ⁷⁾ 수급자비율	이웃유대감	집합효율성
지역무질서	1					
지역평균소득	.093	1				
지역 내 범죄 위험성	.480**	.186*	1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322**	-.443**	-.255**	1		
이웃유대감	-.565**	-.498**8)	-.394**	.560**	1	
집합효율성	-.308**	-.167*	-.130	.328**	.597**	1

*p<0.05, **p>0.01, ***p>0.001

- 7) 기초생활수급자의 상관계수가 지역무질서 수준과 부적 관계를 보이며, 집합효율성 수준, 이웃유대감 수준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참고하여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의 비율은 고령층이 높으며, 노인, 장애인, 모자-부자가구 등의 취약계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은 일반적인 소득수준을 대표하기보다는 다양한 지역 내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가 높은 지역의 경우 지역 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고 지자체의 지원 및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지역 내 사회 응집력을 높이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8)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의 이웃참여 수준이 부적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부적관계를 보이는 원인은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 내 네트워크의 특성의 영향력으로 볼 수 있는데, 폐쇄적인 특성을 지닌 네트워크의 경우 네트워크 내부에서는 응집력 수준이 높으나, 네트워크 외부와는 배타적인 특성을 지니는 특성을 가질 수 있다(유석춘, 장미혜, 2002). 따라서 전체적인 평균 수준의 이웃참여 수준이 낮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지역의 단위가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 수준이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의 경우 지역 내 소득 불균형이 높아, 이웃참여 수준이 낮을 것이라고도 예측할 수 있다.

제2절 분석 결과

1. 기초모형 분석 결과

연구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다층분석모형의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신뢰도 등을 확인하여 기초모형을 분석하였다. 기초모형을 분석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지역사회요인의 분산은 model 1(가해여부)은 0.39, model 2(피해여부)는 0.04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산이 전체 분산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ICC(intraclass correlation)값을 산출한 결과⁹⁾ 가해경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model 1은 전체 분산의 10.6%, 피해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model 2는 전체 분산의 1.2%¹⁰⁾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경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할 때, 설명력이 더 높게 나타난 원인은 기존 연구가 가해자 중심의 연구가 주로 이뤄져 왔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이러한 기존 연구 결과를 기초로 구성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성된 연구모형은 피해경험 모형보다는 가해경험 모형에 더 적합한 연구모형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위에서 제시된 ICC값은 지역사회요인의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 경험여부가 개인차에 의한 분산도 있으나, 지역사회요인의 차이에 따른 변량도 존재함을 보여준다. 즉 개인의 학교폭력 경험여부가 지역특성에 따라 다르며, 지역적인 특성이 개인이 학교폭력 경험을 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수준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분석방법인 다중회귀분석이 아닌 위계적일반화선형모형(HGLM)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9) Snijders와 Bosker(1999)의 로짓모형에 대한 ICC(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공식은 다음과 같다. $ICC = \tau_{00}/(\tau_{00} + \pi^2/3)$

10) 1.2%의 수치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level 2 수준인 지역사회요인이 종속변수인 가해경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보다 level 1 수준인 개인요인에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개인*지역 간 층위 간 상호작용 효과 검증을 위해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표 IV-5> 기초모형의 무선효과 크기

	지역사회 요인 분산	개인요인 분산 ¹¹⁾	df	p	신뢰도	ICC
model 1	0.39	1	79.00	0.021	0.234	0.106
model 2	0.04	1	79.00	0.075	0.062	0.012

2.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가.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의 영향력 분석 결과(2단계 모형)

먼저 연구문제 1인 개인요인(개인적 특성, 가정 특성, 학교 특성)의 미시적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개인요인의 독립변수만을 투입하여 종속변수인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2단계 모형 분석 결과 고정효과를 설명하는 모수는 절편(γ_{00}) 값인 지역사회요인의 상수 값(회귀계수=-2.68)으로 설명이 된다. 1수준의 설명변수가 각 집단 내 평균으로 중심화되었으므로, 절편계수인 절편(γ_{00}) 값은 전체 조사 대상인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학교폭력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피해경험을 할 확률을 의미한다.

먼저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경험이 없을 때와 비교하여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할 확률에 대한 검증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t=2.35$, $p<.05$), 교우관계($t=4.67$, $p<.001$), 교사관계($t=-2.41$, $p<.01$) 등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아래 <표IV-6>와 같다.

개인요인 중 개인적 특성에서는 자아존중감(odds ratio =1.07)변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특성변수 중에서는 교우관계(odds ratio =1.22), 비행친구(odds ratio =1.72) 등의 변수가 피해경험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교사관계 변수는 피해경험과

11) 개인요인의 분산이 1인 이유는 종속변수의 오차가 이항분포할 경우 HGLM 분석에서는 편의상 개인수준의 분산을 1로 고정한다(양정호, 2004).

부적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개인적 특성인 자아존중감 변수의 분석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가설 1-1-1인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을수록 피해경험을 높일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자아존중감은 오히려 피해경험과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낮은 자아존중감은 피해자의 대표적 특성으로 보고되는 기존 연구결과(김정원, 김광웅, 2003)와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기존과 다른 결과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사람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자신에 대한 평가 혹은 비판에 대해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Shlenker, Soraci & McCarthy, 1976)에 기초하여 해석이 가능하다. 피해경험을 한 당사자들의 경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으로 ‘난 괜찮다’라는 자존감보호전략을 쓸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피해경험을 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 수준은 개인요인의 특성은 잘 설명하고 있으나, 대인관계에 기능하는 심리적 요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지적(Kernis, 2005)으로 미루어볼 때, 최대 2표준편차 증가하더라도, 1.07배의 제곱인 1.14배 피해 경험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가정 특성인 학대 및 방임수준은 피해경험과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

학교 특성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가설1-2-1(학교 특성-피해경험 간 부적 관계)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교우관계의 경우는 청소년의 교우관계가 1 표준편차 높아질수록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피해경험을 할 확률(odds-ratio)이 1.22배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설 1-2-1에서 학교 특성과 피해경험 간의 관계가 부적일 것으로 예측한 것과 다르게, 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가해 또는 피해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 역시 일반적인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집단의 특성에 따라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학교 내 부적응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보고(이명숙, 이규민, 2009)와 같이, 집단의

특성에 따라 반사회적 행동을 공유하는 학교 내 교우관계를 가진 청소년의 경우 교우관계 수준이 높아질수록 학교 내 부적응행동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부적응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피해수준과 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개인적 수준의 영향력이 개인이 속한 집단에 따라 다른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3단계 분석에서 교우관계 변수와 개인이 속한 맥락적 특성을 대표하는 지역특성의 변수를 투입하여 영향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학교 특성으로는 교사관계가 1 표준편차만큼 높아질수록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할 확률이 다른 집단보다 더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교사와 학교 생활에 대해 자주 대화하고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하려고 노력하는 교사가 학교 내에 있다고 학생이 인지할수록 학교를 안전하게 인지한다는 연구결과(Akiba, 2008)와 같이 교사의 관심이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감소시키는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 분석 결과(3단계 모형)

3단계 (최종)모형에서는 두 번째 연구문제인 개인요인의 개인적 특성, 가정 특성, 학교 특성이 지역사회요인인 사회해체요인과 사회자본요인에 따라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의 간명화를 위해 2단계 모형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개인요인에만 상호작용으로 지역사회요인을 투입하였다(임찬우, 2014). 지역사회요인의 설명 분산은 $p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지역사회요인 내 변수는 Grand-mean centering을 실시하였다.

우선 모델적합성을 점검하여 보면, 먼저 2단계 모형(unconditional model)의 Log likelihood¹²⁾값은 $-2441.158(x^2=106.48, p < 0.05)$ 로 나타났

12) 최대우도값(maximum likelihood : ML 추정법)의 의미는 X라는 확률변수인 관측치들이 실제로 발생될 확률을 극대화시키는 분포함수를 적용시켜, 모수(parameter)를 추정한다(신동희, 2015). 그 중 HGLM의 경우에는 ML 추정법 중 Penalized Quasi-likelihood(PQL:벌점준우도)를 활용하여 모수를 추정한다(최진이, 2005). 회귀분석과 비교하여 설명하면 회귀분석에서 사용되는 최소제곱법은 데이터에서 제공편차의

으며, 3단계 모형(conditional model)의 Log likelihood값은 -2446.164 ($\chi^2=103.77$, $p<0.01$)인 것으로 나타났다. Log likelihood값의 의미는 해당 모델이 이전 모형보다 나아졌는지 여부를 통계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값이다. 변량이 오히려 증가한 이유는 투입된 변수 중 지역사회요인이 상호작용 변수로 투입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3단계 모형이 2단계 모형보다 상대적으로 모형의 적합도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론을 근거로 투입된 변수들의 영향력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기 위해 투입된 변수임으로, 모형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투입된 변수들을 재조정하기 보다는 투입된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모형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충분한 이론적 검토가 없이 변수를 무조건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모형추정방식을 활용하는 구조방정식 등의 연구방법에서 지양해야 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김진호, 홍세희, 추병대, 2007).

최종 모형인 model 3에서 개인요인 중 피해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은 자아존중감($t=2.02$, $p<0.05$) 교우관계($t=4.13$, $p<0.001$), 교사관계($t=-2.21$, $p<0.01$), 비행친구($t=4.74$, $p<0.001$) 변수로 나타났다. model 2의 결과에서 level 1 수준의 개인요인의 영향력은 model 3에서도 큰 변화 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합이 최소가 되는 점으로 회귀선을 예측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회귀분석의 경우 모형의 적합도를 판별할 수 있는 값이 없다.

그러나 HGLM의 경우에는 likelihood값을 제시하여 모형의 우위를 제시한다. 그러나 model fit을 설명하는 likelihood값은 절대적인 의미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론을 근거로 변수를 투입하였는지 여부와 동시에 균형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로그우도함수(log likelihood)를 사용되었다. 로그우도함수는 0을 제외하고 늘 음수를 나타내는데, 기존 likelihood가 0~1의 범위만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자연로그를 씌워 $-\infty$ (무한대)값을 제시하여 비교 가능한 값으로 변환시켰다. 0에 가까울수록 모형적합도가 증가한다.

<표 IV-6>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HGLM 분석 결과

변수	2단계 모형(unconditional model)				3단계 모형(conditional model)			
	회귀 계수	표준 오차	t	odds -Ratio	회귀 계수	표준 오차	t	odds -Ratio
개인요인								
· (개인) 자아존중감	0.07*	0.03	2.35	1.07	0.06*	0.03	2.02	1.06
· (개인) 공격성	-0.05	0.04	-1.31	0.95	-0.05	0.03	-1.34	0.95
· (가정) 학대	0.04	0.03	1.40	1.04	0.05†	0.03	1.73	1.05
· (가정) 방임	-0.04	0.06	-0.74	0.96	-0.04	0.06	-0.62	0.96
· (학교) 학습활동	0.01	0.04	0.18	1.01	0.01	0.04	0.21	1.01
· (학교) 학교규칙	-0.04	0.05	-0.72	0.96	-0.04	0.05	-0.70	0.97
· (학교) 교우관계	0.19***	0.04	4.67	1.22	0.18***	0.04	4.13	1.19
· (학교) 교사관계	-0.10**	0.04	-2.41	0.91	-0.08**	0.04	-2.21	0.92
· (학교) 비행친구	0.54***	0.10	5.23	1.72	0.53***	0.11	4.74	1.69
지역사회요인								
· 상수(Y ₀₀)	-2.68***	0.11	-23.70	0.07	-2.78***	0.12	-23.04	0.06
· 지역무질서					-0.26	0.19	-1.35	0.77
· 지역평균소득					-0.06	0.11	-0.52	0.94
· 범죄위험성					0.23	0.17	1.36	1.25
· 수급자비율					0.00	0.14	0.01	1.00
· 이웃유대감					-0.20	0.21	-0.94	0.82
· 집합효율성					0.12	0.15	0.81	1.13
개인·지역 상호작용								
· 자아존중감*지역무질서					-0.01	0.03	-0.29	0.99
· 자아존중감*지역평균소득					0.05	0.03	1.46	1.05
· 자아존중감*범죄위험성					-0.02	0.04	-0.51	0.98
· 자아존중감*수급자비율					0.03	0.03	0.97	1.03
· 자아존중감*이웃유대감					0.10*	0.04	2.51	1.10
· 자아존중감*집합효율성					-0.07*	0.03	-2.23	0.93
· 교우관계*지역무질서					0.03	0.07	0.40	1.03
· 교우관계*지역평균소득					0.05	0.08	0.64	1.05
· 교우관계*범죄위험성					-0.01	0.08	-0.11	0.99

변수	2단계 모형(unconditional model)				3단계 모형(conditional model)			
	회귀 계수	표준 오차	t	odds -Ratio	회귀 계수	표준 오차	t	odds -Ratio
· 교우관계*수급자비율					0.11	0.07	1.52	1.12
· 교우관계*이웃유대감					-0.04	0.09	-0.43	0.96
· 교우관계*집합효율성					-0.04	0.05	-0.76	0.96
· 교사관계*지역무질서					0.07	0.06	1.25	1.08
· 교사관계*지역평균소득					0.01	0.06	0.14	1.01
· 교사관계*범죄위험성					0.03	0.05	0.75	1.03
· 교사관계*수급자비율					-0.02	0.06	-0.37	0.98
· 교사관계*이웃유대감					0.07	0.10	0.70	1.07
· 교사관계*집합효율성					0.03	0.05	0.56	1.03
· 비행친구*지역무질서					-0.05	0.17	-0.33	0.95
· 비행친구*지역평균소득					-0.16	0.20	-0.80	0.85
· 비행친구*범죄위험성					-0.02	0.13	-0.13	0.98
· 비행친구*수급자비율					-0.08	0.19	-0.41	0.93
· 비행친구*이웃유대감					-0.35[†]	0.20	-1.73	0.71
· 비행친구*집합효율성					0.07	0.10	0.72	1.08
무선 효과	Log likelihood	df	χ^2		Log likelihood	df	χ^2	
지역 간 분산	-2441.158	79.00	104.48*		-2446.164	73.00	103.77*	

[†]p<0.1, *p<0.05, **p>0.01, ***p>0.001

지역사회요인과 개인요인 간의 층위 간 상호작용 효과가 발견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호작용 효과 검증을 위해 세운 가설 중, 2-1-1인 개인요인-사회해체요인 간 상호작용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으며, 2-2-1인 개인요인-사회자본요인 간 상호작용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먼저 개인요인 중 개인적 특성의 자아존중감 변수는 지역사회요인과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이웃유대수준이 높은 지역 내 거주하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개인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경험 확률이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과 비교하여 0.79배 낮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반대로 자아존중감이 낮을 때 피해경험을 할 확률이 3.45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사회요인의 이웃유대감이 낮은 지역의 경우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자아존중감(평균+1SD) : 0.04배, 자아존중감(평균-1SD) : 0.03배). 3단계 모형에서의 자아존중감 변수(Odds ratio : 1.06배)의 효과는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그래프를 활용하여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이웃유대감 수준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과 비교하여 피해경험을 할 확률이 0.79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 수준과 이웃유대감 수준 간의 상호작용 효과 중 피해경험을 할 가능성을 가장 크게 낮추는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V-1 참고). 결과적으로는 자아존중감 수준은 지역사회요인의 변수인 이웃유대감 수준과 상호작용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요인인 이웃유대감이 개인요인-피해경험 간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이웃 간 유대감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자아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강현주, 2012)가 있으며, 학교폭력 피해, 가해 학생 모두가 부모를 비롯한 성인들의 유대감이 낮아 통제나 감독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이상균, 정현주, 2013)를 통해 이웃유대감 수준과 학교폭력 간의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자아존중감 변수가 이웃유대감 수준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상호작용 효과는 본 연구에서 새롭게 밝혀진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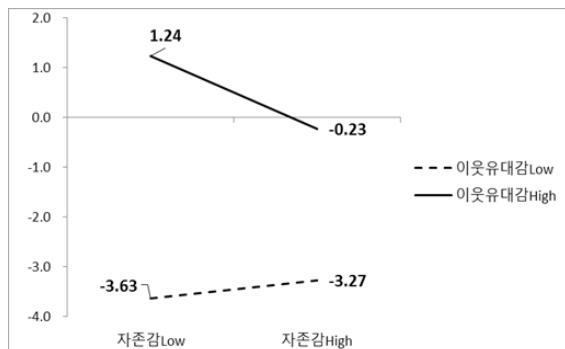
또한 자아존중감 변수는 집합효율성 변수와 상호작용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낮고, 집합효율성이 낮을 때,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과 비교하여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1.7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낮은 자아존중감의 부정적 영향력이 지역 내 낮은 집합효율성 수준과 결합하여 개인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아존중감 변수가 독립적으로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자아존중감이 1SD(표준편차) 수준 높아질 때, 피해경험을 할 확률이 1.06배(2SD:1.12배 ($1.06^2=1.12$), $t=2.02$, $p<.5$)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자아존중감 변수는 지역사회요인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개인의 낮은 자아존중감 수준과 지역의 낮은 집합효율성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는 1.7배 만큼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사회해체이론에 근거한 변수인 집합효율성 변수는 개인요인인 자아존중감 변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내 집합효율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 지역 내 주민들이 지역 내 청소년들의 폭력을 목격할 때, 이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해당 청소년들의 선도에 힘쓸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후미진 지역이나, 유해환경 등에 대한 정화활동에도 참여할 것이다. 또한 학교환경은 지역환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구조적으로 개별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Laub & Lauritsen, 1998). 따라서 지역 내 집합효율성이 높다면, 지역 내 환경뿐 만 아니라 학교 주변 환경의 안전 확보에도 힘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내 학교폭력 감소를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과 가장 밀접한 관계성을 가진 성인인 학부모가 자녀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대한 감독 및 참여 수준을 높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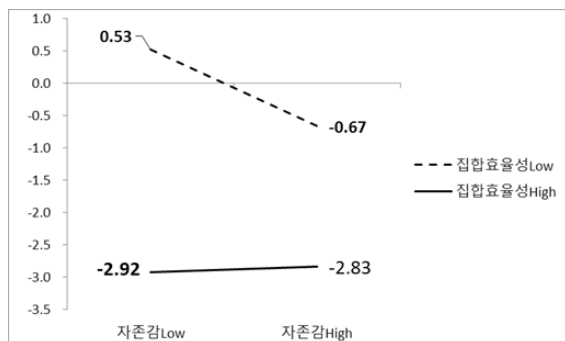
감독 및 참여의 중요성은 이미 기존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서미정, 김경연, 2008). 이에 효과적인 학교폭력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 수준에 대한 접근과 동시에 지역 내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문제해결능력 향상에도 개입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학교 특성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비행친구 변수가 이웃유대감 변수와 상호작용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를 그래프를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비행친구의 개별적 영향력은 1.69배($t=4.74$, $p<.001$)로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과는 달리, 이웃유대감 수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는 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비행친구가 많고(평균+1SD), 이웃유대감 수준이 낮을 때(평균-1SD),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할 확률이 가장 크게(0.19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행친구가 많은 청소년이 지역 내 이웃 간 유대감이 낮은 지역에 거주할수록 피해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행친구 변수는 피해뿐 만 아니라 가해수준을 동시에 높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박현수, 2014; 정지원, 강정한, 2012). 즉 비행친구 수준이 높을 때, 피해집단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비행친구들이 있는 경우 친구와 함께 비행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이웃유대감이 낮은 경우 지역 내 통제 수준이 낮아져 비행친구들과 함께 오히려 학교폭력 가해행동이 나, 비행 등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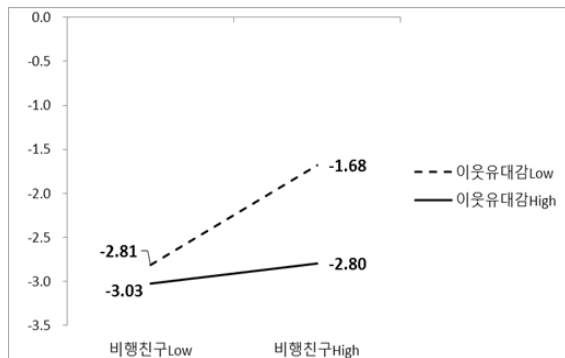
< 하위집단 별 학교폭력 피해경험
확률 (odds ratio) >

	이웃유대감 Low	이웃유대감 High
자존감 Low	0.03	3.45
자존감 High	0.04	0.79



< 하위집단 별 학교폭력 피해경험
확률 (odds ratio) >

	집합효율성 Low	집합효율성 High
자존감 Low	1.70	0.05
자존감 High	0.51	0.06



< 하위집단 별 학교폭력 피해경험
확률 (odds ratio) >

	이웃유대감 Low	이웃유대감 High
비행친구 Low	0.06	0.05
비행친구 High	0.19	0.06

※ 그래프에 제시된 수치는 회귀계수로서, 기울기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표에 제시된 수치는 해당 회귀계수를 Exponential(지수화)한 것으로 Odds ratio를 표기하였다.

[그림 IV-1] 지역사회요인의 수준에 따른
개인요인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영향력 변화

3.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가.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의 영향력 분석결과(2단계 모형)

연구문제 1인 개인적 특성, 학교 특성, 가정 특성 등의 미시체계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개인요인(level 1)의 독립변수만을 투입하여 종속변수인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고정효과를 설명하는 모수는 절편(γ_{00}) 값인 지역사회요인의 상수값(회귀계수=-3.46)으로 설명이 된다. 개인요인의 설명변수가 각 집단 내 평균으로 중심화되었으므로, 절편계수인 절편(γ_{00}) 값은 전체 조사 대상인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가해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가해경험을 할 확률을 의미한다.

개인요인 중에서는 학교규칙($t=2.16$, $p<.05$), 교우관계($t=1.95$, $p<.1$), 비행친구($t=7.44$, $p<.001$) 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아래 <표Ⅳ-7>과 같다. 분석을 위해 세운 가설의 채택여부를 살펴보면, 가설1-1-6에서 예측된 비행친구-가해경험 간 정적인 관계가 경험적 연구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나타났다. 가설 1-2-2번은 학교 특성-가해경험 간의 부적결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한 것과는 반대의 결과가 타나났다.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청소년의 학교규칙 준수 수준이 1SD(표준편차) 높아질수록 학교폭력 가해경험을 할 확률이 가해경험이 없는 집단과 비교하여 1.1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 학교규칙을 잘 지키는 청소년일수록 학교폭력 가해경험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는 지역사회요인(level 2)의 영향력과 함께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개별적인 영향력이 주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학교규칙의 적용과정에 있어서 폭력적인 방법이 동반되거나, 공평하지 않게 적용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 학교규칙의 적용 과정에서 교사의 폭력이 동반되거나, 학교규칙의 적용이 명료하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학교규칙준수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이상균, 1999). 학교규칙변수가 가진 의미가 교사와 학생간의 유대관계나 전체적인 학교 분위기 등까지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칙의 적용 과정에 학교 내 구성

원들 간 충분한 합의과정과 의견수렴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의 부재가 예상과 다른 결과를 나타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 교우관계가 1 표준편차 높아질수록 가해경험을 할 확률이 1.15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 역시 위의 학교규칙 변수와 같이 전체적인 학교 분위기 혹은 교우관계 외에 맺고 있는 친구관계의 특성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단일 요인의 영향력으로서만 설명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특히 패거리문화는 가해경험 및 피해경험 모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정지원, 강정한, 2012)로 미루어볼 때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교실 내에서 패거리를 이룰 경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패거리 형태의 교우관계로 인해 가해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비행친구 변수 수준이 1 표준편차 높아질수록 가해경험을 할 확률은 3.27배로 나타났다. 비행친구 변수는 기존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위험행동 및 비행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이며, 일관적으로 보고되는 변수이다(Matsueda et al., 1998). 이에 전국 단위에서 표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 분석결과(3단계 모형)

3단계 (최종)모형에서는 학교폭력 가해경험을 종속변수로 하고,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level-1) 및 지역사회요인(level-2)을 투입하여 개인 및 지역사회요인이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model의 간명화를 위해 2단계 모형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개인요인에만 상호작용으로 지역사회요인을 투입하였다(임찬우, 2014).

우선 모형적합성을 점검하여 보면, 먼저 2단계 모형(unconditional model)의 Log likelihood값은 $-2275.296(x^2=107.58, p<0.05)$ 로 나타났으며, 3단계 모형(conditional model)의 Log likelihood값은 $-2205.487(x^2=108.96, p<0.01)$ 인 것으로 나타났다. Log likelihood값의 의미는 해당 모형이 이전 모형보다 나아졌는지 여부를 통계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값이

며,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야 모형적합도가 더 좋으므로(강상진, 2016), 지역 사회요인들의 투입으로 인해 모형적합도는 더 좋아졌다. 지역사회요인의 설명 분산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투입된 변수가 지역사회요인의 변량은 감소시키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지역사회요인(level 2)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아닌 집단과 비교하여 학교폭력 가해경험을 할 확률에 대한 검증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요인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로 나타났다. '지역 내 수급자 비율'이 1 수준 높아질 때, 가해경험을 할 확률이 1.8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대한 HGLM 분석 결과

변수	2단계 모형(unconditional model)				3단계 모형(conditional model)			
	회귀 계수	표준 오차	t	odds -Ratio	회귀 계수	표준 오차	t	odds -Ratio
개인요인								
· (개인) 자아존중감	-0.03	0.03	-1.14	0.97	-0.03	0.03	-1.00	0.97
· (개인) 공격성	-0.07	0.04	-1.89	0.93	-0.06	0.04	-1.61	0.94
· (가정) 학대	-0.01	0.04	-0.15	0.99	-0.01	0.04	-0.32	0.99
· (가정) 방임	0.00	0.06	-0.02	1.00	0.00	0.06	0.02	1.00
· (학교) 학습활동	-0.02	0.05	-0.33	0.98	-0.01	0.05	-0.24	0.99
· (학교) 학교규칙	0.11*	0.05	2.16	1.12	0.10†	0.05	1.93	1.10
· (학교) 교우관계	0.14†	0.07	1.95	1.15	0.15**	0.07	2.28	1.16
· (학교) 교사관계	-0.02	0.04	-0.54	0.98	-0.03	0.04	-0.70	0.97
· (학교) 비행친구	1.18***	0.16	7.44	3.27	1.25***	0.14	8.83	3.49
지역사회요인								
· 상수(Y_{00})	-3.46***	0.16	-21.74	0.03	-3.73***	0.17	-21.86	0.02
· 지역무질서					-0.02	0.27	-0.09	0.98
· 지역평균소득					0.18	0.24	0.73	1.19
· 범죄위험성					0.27	0.26	1.03	1.31
· 수급자비율					0.62**	0.25	2.46	1.86

변수	2단계 모형(unconditional model)				3단계 모형(conditional model)			
	회귀 계수	표준 오차	t	odds -Ratio	회귀 계수	표준 오차	t	odds -Ratio
· 이웃유대감					0.07	0.31	0.23	1.07
· 집합효율성					0.20	0.19	1.05	1.22
개인·지역 상호작용								
· 학교규칙*지역무질서					-0.10	0.07	-1.43	0.90
· 학교규칙*지역평균소득					-0.08	0.05	-1.50	0.92
· 학교규칙*범죄위험성					0.00	0.06	0.03	1.00
· 학교규칙*수급자비율					-0.08	0.06	-1.32	0.92
· 학교규칙*이웃유대감					-0.01	0.08	-0.14	0.99
· 학교규칙*집합효율성					0.05	0.04	1.21	1.06
· 교우관계*지역무질서					0.07	0.09	0.78	1.08
· 교우관계*지역평균소득					0.01	0.07	0.19	1.01
· 교우관계*범죄위험성					-0.09	0.11	-0.84	0.91
· 교우관계*수급자비율					0.13	0.09	1.40	1.14
· 교우관계*이웃유대감					0.05	0.13	0.40	1.05
· 교우관계*집합효율성					-0.18**	0.08	-2.21	0.84
· 비행친구*지역무질서					-0.13	0.25	-0.52	0.88
· 비행친구*지역평균소득					0.19	0.23	0.81	1.20
· 비행친구*범죄위험성					-0.07	0.20	-0.35	0.93
· 비행친구*수급자비율					-0.11	0.26	-0.44	0.89
· 비행친구*이웃유대감					-0.20	0.37	-0.54	0.82
· 비행친구*집합효율성					-0.31	0.20	-1.52	0.74
무선효과	Log likelihood		df	χ^2	Log likelihood		df	χ^2
지역 간 분산	-2275.296		79.00	107.58*	-2205.487		73.00	108.96**

†p<0.1, *p<0.05,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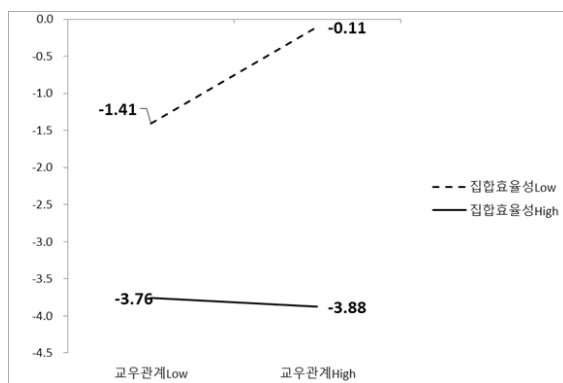
우선 최종 모형인 3단계 모형에서 개인요인(level 1)의 변수 중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은 2단계 모형과 같이 학교규칙, 교우관계, 비행친구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규칙 변수 및 비행친구 변수의 경우 지역사회 수준 변수와의 상호작용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지역사회수준 변수와 층위 간 상호작용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우관계 변수는 지역사회요인과 층위 간 상호작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2-3-2를 통해 예측되었던 개인요인-지역사회요인 간 상호작용 효과는 개인요인 중 학교 특성-집합효율성 간 상호작용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교우관계 수준이 1 표준편차 높아질수록 학교폭력 가해경험을 할 가능성은 1.16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교우관계 수준의 영향력은 지역사회요인인 집합효율성 수준이 1 표준편차 높아질수록 회귀계수가 -0.18 수준($p<0.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교우관계의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대한 영향력이 집합효율성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더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을 층위 간 상호작용 효과(cross-level interaction effect)가 있다고 하며, 그림으로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그림 IV-2]와 같다.

집합효율성의 수준에 따라 교우관계가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을 표시한 아래 [그림 IV-2]를 보면,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속할 확률이 가장 낮을 때는 교우관계가 높고 집합효율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odds ratio=0.90배)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사회요인의 관점에서 설명하거나, 혹은 개인요인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개인의 교우관계 수준은 지역사회요인인 집합효율성의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 않다. 반대로 집합효율성의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가해경험을 할 가능성이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0.9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개인의 교우관계 수준이 높을수록 집합효율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가해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집합효율성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학부모나,

영향력을 가진 성인들이 지역 내 학교폭력 발생에 대한 관심이 낮아, 학교 주변 유해환경 감소나, 범죄유발지역에 대한 감시,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아 개인의 교우관계 수준의 영향력이 더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지역사회요인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때에는 개인요인이 보호요인으로서 그 영향력이 강화되어 종속변수인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지역사회요인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때에는 개인요인의 부적 영향력이 미미해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개인요인과 지역사회요인이 상보적인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하위집단 별 학교폭력 가해경험 확률 (odds ratio) >

	집합효율성Low	집합효율성High
교우관계 Low	0.25	0.02
교우관계 High	0.90	0.02

※ 그래프에 제시된 수치는 회귀계수로서, 기울기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표에 제시된 수치는 해당 회귀계수를 Exponential(지수화)한 것으로 Odds ratio를 표기하였다.

[그림 IV-2] 집합효율성 수준과 교우관계 수준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대한 효과

V. 요약 및 결론

제1절 결과요약 및 논의

지금의 현대사회는 경제문제, 다원화된 가치 등이 초래한 계층 간의 갈등, 부의 불평등 등으로 인한 사회분열로 인해 연대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강수택, 2006). 특히 공동대응력, 지역 내 문제해결능력 등이 요구될 정도로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그 중 학교폭력문제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성적 이외에 가장 우려되는 문제이다. 그 동안 정부, 지자체, 학계 등에서 관심을 갖고 학교폭력 문제에 접근하여 왔지만,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더불어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심각한 학교폭력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의 연구가 개인 수준에 치중된 것으로부터 비롯된 학문적, 실천적 접근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학교폭력을 다룬 기존의 연구 동향은 학교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다루어왔다. 그 이유는 학교폭력 관련 연구의 기반이 되는 이론적 배경이 주로 심리적, 개인 발달적 이론에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 233편의 학교폭력 관련 연구를 분석한 결과 48.3%가 개인적 특성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옥분 등, 2008). 이와 같은 경향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지역 요인을 통제변인이나 주변적 변인으로 바라보게 하는 패러다임을 제공하였다는 비판을 받게 한다(박진희, 김현주, 2015). 이에 지역사회요인 또한 학교폭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개인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은 학교폭력은 단순히 개인적 수준에 의해서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존의 통념과는 달리, 학교폭력은 개인요인과 지역사회 변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패러다임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

연구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관련 요인인 학교부적응, 비행, 범죄율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요인의 영향력은 기존 연구에서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 내 사회적 규범(이순래, 이경상, 박철현, 2012), 지역 내 유대관계(서정아, 조흥식, 장주희, 2012), 빈곤(김광혁, 2008; 김진희, 이상록, 2011) 등의 요인이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사회요인들을 이론적으로 정리하여, 학교폭력에 미치는 지역의 영향력에 대해 밝힌 연구는 일반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태학적체계이론(Bronfenbrenner, 1979; Hong et al., 2011)을 주이론(main theory)으로 하여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과 지역사회요인을 구성하였다. 지역사회요인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상호작용의 메커니즘을 보다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요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범죄사회학에서 소년범죄발생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활용되어왔던 사회해체이론과 청소년의 발달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역적 요인으로 활용되는 사회자본이론을 활용하여, 각 이론에서 파생된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학생 청소년의 개인요인은 청소년의 학교폭력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중학생 청소년의 개인요인은 지역사회요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학교폭력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연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지역 수준과의 비교가 용이하며, 공공자료로서 조사항목의 신뢰도 및 타당도가 검증된,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주로 사용된 자료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전국범죄피해조사, e-나라지표이다.

연구를 위해서 학교폭력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지역사회요인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구성하여, 개인요인과 지역사회요인의 영향력을 각각 나

누어 고찰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배경변수나 통제변수로 여겨왔던 지역사회요인의 독립적, 또는 상호작용적 영향력을 발견하고자, HGLM(위계적일반화선형모형)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개인요인의 영향력과 지역사회요인의 영향력을 구분하여, 각각의 영향력을 조사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경험에 대한 개인요인(개인적 특성, 가정 특성, 학교 특성)의 영향력은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경우 자아존중감, 비행친구 수준이 모두 높을 때 높게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경험의 경우 비행친구 변수가 정적인 방향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요인은 지역사회요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 변수는 자아존중감과 이웃유대감, 자아존중감과 집합효율성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비행친구와 이웃유대감변수도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아존중감과 집합효율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집합효율성 변수는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집합효율성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셋째, 개인요인은 지역사회요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변수는 학교 내 교우관계변수와 집합효율성 변수로 나타났다. 교우관계와 집합효율성 간의 관계에서는 교우관계가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우관계수준이 높을 때에는 집합효율성이 낮더라도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속할 확률이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본 연구 결과가 지닌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개인-지역 간 상호작용 효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개인요인 중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 때 이웃유대감 수준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과 비교하여 피해경험을 할 확률이 0.79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해체요인과 비교하여 이웃유대감 등을 설명

하는 사회자본요인은 대체적으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내 이웃유대감이 높다는 것은 사회자본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며 사회자본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역 내 주민들의 정치참여 수준이나, 시민성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유석춘, 장미혜, 2002).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비공식적 사회통제 수준이 높기 때문에 지역 내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감시나, 통제 수준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박성훈, 2011). 지역 내 사회자본 수준이 높을 때는 지역 내 알고 있는 어른들과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지역 내 행사 등에 민을 만난 어른들과 함께 참여하는 청소년일수록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강현주, 2012). 그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지역유대감이 낮은 지역의 경우 사회자본의 수준이 낮고, 비공식적인 사회통제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환경에서 청소년들은 비행이나, 일탈문화를 가진 친구들과의 친교를 맺을 가능성이 사회자본 수준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에게 비행친구 수가 많을 때, 지역의 낮은 사회통제 수준과 상호작용하여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유대감과 같은 사회자본요인은 상호작용 효과를 지니지만, 사회해체 요인에 해당하는 집합효율성도 개인요인인 자아존중감과 상호작용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개인요인인 자아존중감이 낮을 때, 집합효율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할 경우,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과 비교하여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1.7배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 때에는 집합효율성이 낮더라도, 오히려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할 확률은 0.51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집합효율성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자아존중감 수준이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하여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할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있어서도 학교 특성인 교우관계 역시 집합효율성과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 수준의 높고 낮음은 집합효율성의 수준이 높을 때에는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가해경험을 보일 확률을 0.02배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 내 집합효율성이 높은 경우에는 교우관계가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교우관계가 높은 수준을 보이는 학생이 집합효율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할수록 학교폭력 가해경험집단에 속할 확률이 낮을 것으로 나타났다(odds ratio=0.90). 즉 집합효율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개인요인인 교우관계가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하여 가해행동을 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집합효율성 자체가 개인에게 강한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개인요인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집합효율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역 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직접 문제해결을 위해 나설 이웃들이 많기 때문에, 집합효율성 자체가 어느 정도 수준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내 높은 유대수준은 지역 내 청소년들의 비행수준, 지역 내 범죄발생을 줄인다는 기존 연구결과(윤우석, 2010; Sampson & Laub, 1993)로 미루어 볼 때, 지역 내 문제해결을 위해 참여하고 관여하는 높은 공동체 의식을 지닌 성인들을 자주 보고, 만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학교폭력경험에는 개인요인뿐 만 아니라 지역의 집합효율성 및 이웃유대감이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효율성 변수는 학교폭력 피해를 예방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우관계 변수는 집합효율성이 낮을 때 학교폭력 가해를 예방하는 보호요인임이 발견되었다. 비행친구가 많은 경우 이웃유대감이 낮을수록 피해경험 보다 가해경험이나 비행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웃유대감이 낮을 경우 지역 내 통제가 약화되어 비행친구와 폭력 등의 비행에 연루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기존의 개인적 접근을 기초로 한 학교폭력 관련

연구에서는 보기 어려운 결과를 도출하였다. 개인요인인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은 기존 연구들에서 학교폭력 가해행동과의 관계가 일정하게 도출되지 않고 있는 변수 중 하나이다. 자아존중감 변수가 학교폭력과 일정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 원인에 대해 연구자들은 다양한 차원의 자아존중감을 변수 측정 시에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김하연 등, 1991; 황수진, 2016).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일정하지 않은 배경에는 지역 요인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향후 연구에서는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학교폭력 예방요인 중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면, 지역사회요인의 영향력을 고려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사회적 맥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개인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밝혀졌더라도, 지역의 특성에 따라 그 영향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향후 연구에서는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2절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는 학교폭력경험에 대해 개인요인 및 지역사회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는 학교폭력의 영향 요인을 주로 개인요인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역 수준에서의 접근뿐 만 아니라 지역-개인 간 상호작용 효과 등을 밝혀 개인 및 지역사회요인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상세히 밝히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생태학적 이론을 주이론으로 하여, 지역사회 수준에 대한 설명의 정교화를 꾀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해체이론과 사회자본이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수준의 영향력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이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학교폭력 경험여부의 충분한 사례 수집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학교폭력경험은 변수의 특성 상 충분한 사례수를 수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계수에 대한 추정을 사용하는 HGLM의 방법의 특성 상 적은 사례수가 갖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었지만 변수의 수에 비해 사례수가 비교적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 보완 또는 방법론 보완을 통해 극복해야 할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종속변인의 구성이다. 본 연구에서 다뤄진 첫 번째 종속변인은 학교폭력 피해경험 vs 피해가 없는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종속변인은 학교폭력 가해경험 vs 가해가 없는 집단으로 이뤄져 있다. 연구의 초점이 학교폭력 피해 또는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초점을 있기 때문에, 각각의 비교집단 구성에 있어서 단일요인의 집단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즉 첫 번째 종속변수를 피해경험 vs 무경험으로 두 번째 종속변수를 가해경험 vs 무경험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속변수를 피해 또는 가해의 단일 요인으로만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 비교집단에 가해 또는 피해경험이 포함되어 있는 기존 모형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기존의 종속변수 구성이 의도한 바와 같이 피해경험

과 피해경험이 아닌 집단으로 구성하였을 때, 논리적으로 좀 더 자연스럽다. 이에 변수의 구성은 학교폭력 피해경험 vs 피해가 아닌 집단, 학교폭력 가해행동 vs 가해가 아닌 집단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2차 자료 이용에 의한 한계점이다. 사회자본이론의 경우 이웃유대감 외에도 이웃과의 교류, 주민조직참여 등으로 측정될 수 있다(곽현근, 2008). 하지만 자료로 활용한 범죄피해조사 측정변수에는 주민조직참여, 교류정도 등의 변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회자본이론을 연구에 충분히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가정변인 역시 학대, 방임 외에도, 부모감독, 양육태도 등의 변수가 해당년도에 조사되지 않아 가정변인을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넷째, 학교수준 변수를 개인요인과 지역사회요인과 같이 개별적인 수준으로 추가하여 분석하였을 경우, 지역 수준 및 학교수준 변수의 영향력을 명세화시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료의 한계 상 학교코드는 제공되지 않아, 학교별 특성을 개인 특성과 분리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제언하는 점은 학교폭력발생과 관련이 큰 지역사회요인인 지역사회 내 주민들 간의 유대감과 집합효율성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지역 내 학부모회, 부녀회, 사교육 강사, 청소년 대상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 학교 관계자들 간 다양한 경로의 협력관계를 맺는 것은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협력체제를 구성하게 되며, 결국 지역역량(community capacity)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유승현, 2009).

그러나 지역역량의 기본은 먼저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있다(김윤희, 2010). 청소년은 지역 내 성인들 중 가정에서는 주로 부모의 영향력을 받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주로 교사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부모가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통해 긍정적인 양육환경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일방적이기 보다는 소통하는 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학교 내 질서를 위해 필요

한 규칙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학부모의 참여와 관심은 학교폭력예방에 중요한 요소로서 다뤄져야 한다. 학부모가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참여하는 것은 학생에게 교육의 가치를 심고, 학교와 가정의 일치성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Epstein & Lee, 1995). 그밖에도 학부모의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를 안전하게 인식한다는 보고(Shumow & Lomax, 2001) 역시 학부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지역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보면 저소득층일수록, 지역 내 사회자본 수준이 낮을수록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내 소득수준과 사회자본 수준은 정적인 관계가 아니다. 도시빈곤지역에 관한 연구인 장정민(2006)은 지역 내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의 경우 보다 더 활발하게 반사회가 이뤄지고, 주민 상호 간 접촉이 자주 이뤄지는 경우를 보고하고 있다. 이에 소득수준이 낮거나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이라도 지역 내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사회자본이 형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박형원(2015)의 연구는 이에 대해 좋은 사례를 제공하는 질적연구이다. 낙후된 저소득층 지역 주민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 사회 내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인 결과, 지역 내 사회자본을 형성해 나가면서 지역 내 교육문제, 현안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충분히 이끌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인요인과 지역사회요인 간의 관계에 대해 추후 연구에서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 효과를 초점으로 하였지만, 개인요인과 지역사회요인 간에는 다양한 관계를 보일 수 있다. Jencks & Mayer(1990; Leventhal & Brooks-Gunn, 2000 재인용)는 개인-지역 간의 관계에 대해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감염모델(contagion model)로서 지역 내 유해환경이 마치 감염과 같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관점이다. 둘째, 지역자원모델(neighborhood

institutional resource models)은 지역 내 도서관, 체육관, 공원과 같은 근린시설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셋째는 집합적 사회화 모델(collective socialization model)이다. 지역사회가 역할모델을 제공하는 역할 및 지역 내 감시 및 감독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넷째는 상대적 박탈감 모델(relative deprivation models)로서 지역 특성이 거주민에게 박탈감 제공 여부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요인이 개인요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추후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지역사회요인이 개인요인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면, 지역사회가 개인의 행동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을 감소시키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성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요인의 체계적, 종합적 접근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차원의 학교폭력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교육방안, 실제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지역의 영향력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강상진 (2016). 다층모형. 학지사:서울.
- 강수택 (2006). 시민적 연대의 의미 구조: 다원화된 현대 시민사회의 사회적 연대론. 사회와 이론, 8, 105-148.
- 강승호 (1996).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행동특성 비교 연구. 教育研究, 6(1), 211-244.
- 강현주 (2012).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지역요인과의 관계.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3, 581-603.
-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2000). 심리척도 핸드북 시리즈. 서울: 학지사.
- 고정은 (2012). 지역사회 환경과 노인 우울의 관계에 대한 다층모형 검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정은, 이선희 (2012). 노인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층분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1), 322-351.
- 곽윤정 (2014).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어울림’에 대한 제언-어울림 프로그램의 적용 및 효과에 대한 토론.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대회지, 10, 81-84.
- 곽춘옥 (2003). 생태학적 문식성과 평가. 제 25 회 국어교육학회학술발표대회 자료집.
- 곽현근 (2008).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미치는 동네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1(4), 59-86.
- 권오명 (2005).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18, 257-279.
- 김경집 (2005). 초기 청소년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환경과 학구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6(1), 421-448.
- 김광혁 (2008). 가족의 경제적 결핍과 구조적 결손, 이웃환경이 청소년기 아동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9(3), 115-138.

- 김선애 (2004). 집단따돌림 연구경향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39-40, 73-107.
- 김세원 (2003).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정 (2005). 집단 따돌림의 가해, 피해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사회적 요인. 상담학연구, 6(2), 359-371
- 김영지, 방은령, 박정선, 박경희 (2006).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문제행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윤희 (2010). 학교 금연담당교사의 지역사회 역량과 영향요인. 한국자료 분석학회, 12(4), 2009-2023.
- 김윤희, 조영태 (2008). 지역특성이 취약집단 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인구학, 31(1), 5-30.
- 김은경, 황지태, 황의갑, 노성훈 (2013).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영 (2008). 학교분위기가 중학생의 또래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26(단일호), 87-111.
- 김정원, 김광웅 (2003).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성향.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0(1), 21-35.
- 김지연, 이인숙 (2008). 가정폭력 직·간접 경험이 청소년의 비행과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피해자학연구, 16, 199-228.
- 김진호, 홍세희, 추병대 (2007). 경영학 연구에서의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용: 문헌 연구와 비판. 경영학연구, 36(4), 897-923.
- 김진희, 이상록 (2011). 빈곤, 주거환경, 이웃환경과 청소년발달의 구조적 관계. 청소년학연구, 18(5), 385-411.
- 김창익 (2013). 지역사회의 특성이 비행친구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창익, 윤우석 (2013). 지역사회 생태학적 특성이 비행친구와 비행에 미치는 영향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15(2), 61-85.
- 김하연, 오경자, 윤진 (1991). 청소년의 자아 개념 또래집단에 대한 동조 및 비행간의 상호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4(1), 199-212.
- 김형용 (2010). 지역사회 건강불평등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학, 44(2), 59-92.
- 김혜원 (2009). 청소년 부적응행동과 자아존중감의 관련성 재조명. 미래청소년학회지, 6(3), 1-22.
- 김혜원, 임광규, 임동훈 (2013). 집단괴롭힘 가해, 피해, 목격 경험이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5), 77-106.
- 김희수, 이재토, 홍성훈 (2006).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이 학교적응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문제연구, 24, 79-97.
- 김희화 (2001). 청소년의 집단 괴롭힘과 학교생활 특성에 관한 연구-일반집단, 가해집단, 피해집단 및 가해-피해집단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8(2), 119-141.
- 노언경, 홍세희 (2013). 이중 변화형태 모형을 적용한 초기 청소년의 집단 따돌림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의 분류 및 예측. 조사연구, 14(2), 49-76.
- 도기봉 (2008).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공격성과 생태체계요인의 상호작용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0(2), 73-92.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훈 (2011). 한국의 도시지역 범죄피해의 지역적 맥락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수정 (2013). 지역무질서가 부모양육태도를 통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우현, 이수정 (2013). 청소년의 비행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피해경험과 보호 및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교정담론, 7(2), 89-128.
- 박정선 (2007). 지역사회중심의 청소년 비행대책. 한국범죄학, 1(2), 3-39.
- 박진희, 김현주 (2015).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 학교와 지역사회 요인의 부상. 청소년시설환경, 13(4), 115-128.
- 박주형, 정성수 (2012). 고등학교 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학교의 영향 요인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30, 1-19.
- 박철현 (2012). 사회적 무질서, 범죄피해경험, 학교에서의 폭력범죄피해의 두려움. 피해자학연구, 20, 143-166.
- 박현수 (2014). 청소년 비행피해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공정책연구, 31(2), 131-150.
- 박형원 (2015). 어머니의 경험을 통해 본 청소년의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3(2), 215-226.
- 백민경 (2014). 또래괴롭힘 관여 행동과 부모양육태도, 도덕적 이탈, 사회적 책임감 간의 관계. 대구대학교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미정, 김경연 (2004). 아동의 개인적, 환경적 특성과 또래 괴롭힘. 아동학회지, 25(2), 93-108.
- 서정아, 조흥식, 장주희 (2012).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가족,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신동희 (2015). 빅데이털러지. 커뮤니케이션 이해총서.
- 신혜섭 (2005). 중학생의 학교폭력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가해경험, 피해경험, 가해, 피해 중복경험에 대한 분석. 청소년학연구, 12(4), 123-149.
- 양정호 (2004). 고등학생의 재학 중 아르바이트 참여요인 분석-청년패널조사 의 위계적 일반화선형모형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4, 17-37.
- 유석춘, 장미혜 (2002). 사회자본과 한국사회. 사회발전연구, 8, 87-125.

- 유승현 (2009).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참여연구의 적용 방안.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6(1), 141-158.
- 윤옥경 (2008). 청소년 비행에 대한 개인, 가정, 학교, 사회의 영향력 비교. *교정연구*, (38), 107-138.
- 윤우석 (2010). 청소년 지위비행과 부모의 양육행위에 사회의 생태학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81, 175-202.
- 이명숙, 이규민 (2009). 전문계 고등학생의 학업성취, 자아개념, 학교적응 및 학교부적응행동 간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40(1), 167-193.
- 이병환 (2010).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역유관기관의 지원체제 정립과 활성화 방안. *교육문화연구*, 16, 45-73.
- 이상균 (1999). 청소년의 또래폭력 특성과 대처방안. *학교사회복지*, 2, 153-179.
- 이상균, 정현주 (2013). 학교폭력 경험과 부모양육 행동간의 종단적 관계 및 잠재유형 분석: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4, 1-29.
- 이순래, 이경상, 박철현 (2012).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 학교폭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92, 219-255.
- 이승연, 오인수, 이주연 (2014). 초등학교 학교폭력 가해, 피해, 가해-피해 집단의 심리사회적 특성. *청소년학연구*, 21(5), 391-416.
- 이승현 (201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의 개정내용 및 개선 방안. *형사정책연구*, 90, 157-190.
- 이재현 (2007). 청소년 비행 위험도에 관한 연구 :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한 개인요인과 지역사회를 포함한 학교 특성의 영향력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원, 황진구, 모상현, 정은주, 강현철, 한영근, 허효주, 문은옥, 이영화 (2014).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V:사업보고서. 서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해경, 김혜원 (2001). 초등학생들의 집단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예측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117-138.
- 이희현 (2014). 어울림프로그램의 적용 및 효과.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대회지, 10, 35-60.
- 임신일, 이정미 (2013). 남자 고등학생의 부모 간 폭력 목격 경험, 자존감,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력 가해의 관계. 학교사회복지, 26, 27-45.
- 임영식 (1998). 청소년 심리;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5(3), 1-26.
- 임은미, 박진희, 강혜정, 김혜영 (2013). Wee 프로젝트의 위기학생 지원 효율화를 위한 연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임찬우 (2014). 근로빈곤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개인 및 지역 특성에 대한 위계적일반화선형모형(HGLM)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은진, 서민정, 정철호 (2001). 아동 우울에 관련된 요인 및 부모 우울과의 관계 연구. Korean J Child, Adol Psychiatr, 12(-), 245-255.
- 장정민 (2006). 불량주거 지역의 이론 : 한계성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학술정보.
- 장지현 (2013). 부모와 지역사회와의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학열, 최중진, 김청송 (2015). 청소년 위험행동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다차원성 모형검증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1), 307-327.
- 정민수, 조병희 (2007). 지역사회역량이 주민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22, 153-182.
- 정옥분, 정순화, 김경은, 박연정 (2008). 국내 집단따돌림 관련연구의 경향 분석. 인간발달연구, 15(1), 115-137.
- 정윤식 (2013).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의 측정 및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자유 (2012). 지역사회환경이 청소년의 일탈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 연구, 23(1), 89-119.
- 정종진 (2012). 생태학적 측면에서 본 학교폭력의 유발 요인.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11(3), 331-350.
- 정지원, 강정한 (2012). 친밀한 친구집단의 크기와 청소년 비행. 한국사회 학, 46(5), 177-209.
- 정지웅, 임상봉 (1999). 지역사회개발학. 서울대학교출판부.
- 정진성 (2009).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연구: 지역사회에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2), 365-394.
- 정진성 (2014). 서울시의 구조적 특성과 살인범죄에 관한 공간 회귀분석. 서울도시연구, 15(1), 101-118.
- 정진성, 홍성욱, 이가을 (2015). 구조적 지역특성이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 전국 읍면동과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위계적선형모형 분석. 한국치안 행정논집, 12(1), 119-144.
- 조봉환, 임경희 (2003).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조영일 (2013).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특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 달, 26(2), 67-87.
- 진혜민, 배성우 (2012). 청소년비행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청소년복지 연구, 14(2), 193-221.
- 최경옥 (2015). 청소년의 대인관계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사회자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51, 251-286.
- 최은숙, 채준호 (2000).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경향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 에 관한 일 연구. 인간이해, 21(-), 109-136.
- 최지영 (201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생태학적 접근”에 대한 토론문. 한 국인간발달학회 학술대회지, 1, 99-104.
- 최진이 (2005). 로지스틱 회귀모형과 로지스틱 다층모형의 경험적 비교. 연 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승희, 백지숙 (2015). 학교 하위체계요인이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과 학교폭력 태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3(4), 11-22.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상환, 이경연 (2013). 또래괴롭힘 피해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4(2), 283-315.
- 황석규 (2006).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요인분석 연구-서귀포시 초, 중, 고 학생을 중심으로-. *濟州島研究*, 29(-), 253-281.
- 황수진 (2016). 자기애와 학교폭력 가해경험 간의 관계 : 자존감, 자존감안정성의 조절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혜선 (2008).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kiba, M. (2008). Predictors of student fear of school violence: A comparative study of eighth graders in 33 countries. *School Effectiveness and School Improvement*, 19(1), 51-72.
- Alwang, J., Siegel, P., & Jorgensen, S. (2001). *Vulnerability: a view from different disciplines*(Vol. 115). Social protection discussion paper series.
- Arum, R. (2000). Schools and communities: Ecological and institutional dimens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395-418.
- Baldry, A., & Farrington, D. (2000). Bullies and delinquent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arental styles.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10(1), 17-31.
- Bowen, G., & Van Dorn, R. (2002). Community violent crime rates and school danger. *Children & Schools*, 24(2), 90-104.

- Bowen, N., Bowen, G., & Ware, W. (2002). Neighborhood social disorganization, families, and the educational behavior of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7(5), 468-490.
- Bowers, L., Smith, P., & Binney, V. (1994). Perceived family relationships of bullies, victims and bully/victims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1(2), 215-232.
- Breslow, N., & Clayton, D. (1993). Approximate inference in 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88(421), 9-25.
- Bronfenbrenner, U. (1979). Contexts of child rearing: Problems and prospects. *American Psychologist*, 34(10), 844-850.
- Burgess, E. (1967). *The growth of the city : an introduction to a research project*. Ardent Media.
- Cantillion, D. (2006). Community social organization, parents, and peers as mediators of perceived neighborhood block characteristics on delinquent and prosocial activiti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7(1-2), 111-127.
- Coie, J., Watt, N., West, S., Hawkins, J., Asarnow, J., Markman, H., Ramey, S., Shure, M. & Long, B. (1993). The science of prevention: A conceptual framework and some directions for a national research program. *American psychologist*, 48(10), 1013-1022.
- Crosnoe, R., Erickson, K., & Dornbusch, S. (2002). Protective functions of family relationships and school factors on the deviant behavior of adolescent boys and girls reducing the impact of risky friendships. *Youth & Society*, 33(4), 515-544.

- Curtner-Smith, M. (2000). Mechanisms by which Family Processes Contribute to School-Age Boys' Bullying. *Child Study Journal*, 30(3), 169-86.
- Dauvergne, M., & Johnson, H. (2001). *Children witnessing family violence*. Canadian Centre for Justice Statistics.
- DeLuca, S., & Dayton, E. (2009). Switching social contexts: The effects of housing mobility and school choice programs on youth outcom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35, 457-491.
- Deutsch, A., Crockett, L., Wolff, J., & Russell, S. (2012). Parent and peer pathways to adolescent delinquency: Variations by ethnicity and neighborhood contex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1(8), 1078-1094.
- Dishion, T., & Patterson, G. (1997). The timing and severity of antisocial behavior: Three hypotheses within an ecological framework. In Stoff, D., Breiling, J., & Maser, D. (Eds). *Handbook of antisocial behavior*. (pp. 205-217).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 Donnon, T., & Hammond, W. (2007).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y and bullying in adolescence: An assessment of youth resiliency from five urban junior high schools.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16(2), 449-471.
- Dupéré, V., Lacourse, É., Willms, J., Vitaro, F., & Tremblay, R. (2007). Affiliation to youth gangs during adolescence: The interaction between childhood psychopathic tendencies and neighborhood disadvantag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6), 1035-1045.

- Earls, F., McGuire, J., & Shay, S. (1994). Evaluating a community intervention to reduce the risk of child abuse: Methodological strategies in conducting neighborhood surveys. *Child Abuse & Neglect*, 18(5), 473-485.
- Epstein, J., & Lee, S. (1995). National patterns of school and family connections in the middle grades. In Ryan, B. A., Adams, G. R., Gullotta, T. P., Weissberg, R. P., and Hampton, R. L. (eds.), *The Family-School Connec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Sage, CA: Thousand Oaks.
- Espelage, D., Bosworth, K., & Simon, T. (2000). Examining the social context of bullying behaviors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8(3), 326-333.
- Furstenberg, F. (2000). The sociology of adolescence and youth in the 1990s: A critical commentar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4), 896-910.
- Gatti, U., Tremblay, R., & Larocque, D. (2003). Civic community and juvenile delinquency : A study of the regions of Italy.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3(1), 22-40.
- Hawkins, J., Brown, E., Oesterle, S., Arthur, M., Abbott, R., & Catalano, R. (2008). Early effects of Communities That Care on targeted risks and initiation of delinquent behavior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3(1), 15-22.
- Hay, C., Fortson, E., Hollist, D., Altheimer, I., & Schaible, L. (2007). Compounded risk: The implications for delinquency of coming from a poor family that lives in a poor commun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6(5), 593-605.
- Higueta-Gutiérrez, L., & Cardona-Arias, J. (2015). Variables of the Family, School and Social Environment Context that

- Determine Bullying in Adolescents in Medellín-Colombia, 2014. *Journal of School Violence*, (just-accepted).
- Hong, J., & Eamon, M. (2012). Students' perceptions of unsafe schools: An ecological systems analysi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1(3), 428-438.
- Howell, J., & Bilchik, S. (1995). *Guide for implementing the comprehensive strategy for serious, violent, and chronic juvenile offenders*. Washington, DC: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Jordan, K., & Austin, J. (2012).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bullying in US schools and how a parent-educator partnership can be an effective way to handle bullying.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21(4), 440-458.
- Kaplan, H. (1980). *Deviant behavior in defense of self*. New York: Academic Press.
- Kawachi, I., Kennedy, B., & Glass, R. (1999). Social capital and self-rated health: a contextual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9(8), 1187-1193.
- Kernis, M. (2005). Measuring Self Esteem in context: The importance of stability of Self Esteem in psychological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73(6), 1569-1605.
- Laub, J., & Lauritsen, J. (1998). The Interdependence of School Violence With Neighborhood and Family Conditions. In Elliott, D., Hamburg, B., & Williams, K. (Eds.). *Violence in American Schools*(pp. 127-155).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rner, R., Hess, L., Nitz, K. (1991)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psychopathology. In Herson, M., & Last, C. (Eds.). *Handbook*

- of child and adult psychopathology: a longitudinal perspective*. NY: Pergamon Press.
- Lerner, R., & Galambos, N. (1998). Adolescent development: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research, programs, and polici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9, 413-446.
- Leventhal, T., & Brooks-Gunn, J. (2000). The neighborhoods they live in: the effects of neighborhood residence on child and adolescent outcomes. *Psychological bulletin*, 126(2), 309-337.
- Limber, S. (2011). Development, evaluation,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Olweus Bullying Prevention Program. *Journal of School Violence*, 10(1), 71-87.
- Logan, J. (2012). Making a Place for Space: Spatial Thinking in Social Science. *Annual Review of Sociology*, 38, 507-524.
- Logan, J., & Molotch, H. (1987). *Urban fortunes. The Political Economy of Pla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atsueda, R., & Anderson, K. (1998). The Dynamics Of Delinquent Peers And Delinquent Behavior. *Criminology*, 36, 269-308.
- Matsueda, R. (2006). Differential social organization, collective action, and crime. *Crime, law and social change*, 46(1-2), 3-33.
- Merrell, K., Gueldner, B., Ross, S., & Isava, D. (2008). How effective are school bullying intervention programs? A meta-analysis of intervention research. *School Psychology Quarterly*, 23(1), 26.
- Olweus, D. (1997). Bully/victim problems in school: Facts and intervention.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12(4), 495-510.

- Putnam, R.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1995), 65-78.
- Raudenbush, S., & Bryk, A.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Vol. 1). Sage.
- Rigby, K. (2003). *Stop the bullying: a handbook for schools*. Melbourne : Austrailian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
- Roth, J., & Reiss Jr, A. (Eds.). (1993).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violence* (Vol. 1). National Academies Press.
- Simons, R., Simons, L., Burt, C., Brody, G., & Cutrona, C. (2005). Collective efficacy, authoritative parenting and delinquency: A longitudinal test of a model integrating community-and family-level processes. *Criminology*, 43(4), 989-1029.
- Sampson, R., & Laub, J. (1993). Structural variations in juvenile court processing: Inequality, the underclass, and social control. *Law and Society Review*, 27(2), 285-311.
- Sampson, R., Raudenbush, S., & Earls, F.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5328), 918-924.
- Sampson, R., Morenoff, J., & Gannon-Rowley, T. (2002). Assessing neighborhood effects: Social processes and new directions in research. *Annual review of sociology*, 28(-), 443-478.
- Schall, R. (1991). Estimation in generalized linear models with random effects. *Biometrika*, 78(4), 719-727.
- Shaw, C., & McKay, H. (1942).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humow, L., & Lomax, R. (2002). Parental efficacy: Predictor of parenting behavior and adolescent outcomes.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2(2), 127-150.

- Slee, P. (1995). Peer victimization and its relationship to depression among Australian primary school stud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1), 57-62.
- Smith, J., Schneider, B., Smith, P., & Ananiadou, K. (2004). The effectiveness of whole-school antibullying programs: A synthesis of evaluation research. *School psychology review*, 33(4), 547-560.
- Smith, P., & Shu, S. (2000). What good schools can do about bullying: Findings from a survey in English schools after a decade of research and action. *Childhood*, 7, 193-212.
- Snijders, T., & Bosker, R. (1999). *Multilevel analysis: An introduction to basic and advanced multilevel modeling*. London: Sage.
- Swearer, S., & Doll, B. (2001). Bullying in schools: An ecological framework. *Journal of Emotional Abuse*, 2(2-3), 7-23.
- Swearer, S., Espelage, D., Vaillancourt, T., & Hymel, S. (2010). What can be done about school bullying? Linking research to educational practice. *Educational Researcher*, 39(1), 38-47.
- Swearer, S., Peugh, J., Espelage, D., Siebecker, A., Kingsbury, W., & Bevins, K. (2006). A social-ecological model for bullying prevention and intervention in early adolescence: An exploratory examination. In Jimerson, J., & Furlong, M.(Eds.). *Handbook of school violence and school safety: From research to practice*. (pp.333-356). NJ: Lawrence Erlbaum.
- Tomison, A., & Wise, S. (1999). *Community-based approaches in preventing child maltreatment*.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 Wilson, S., & Lipsey, M. (2007). School-based interventions for aggressive and disruptive behavior: Update of a meta-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3(2), S130-S143.
- Zimmerman, G., & Messner, S. (2010). Neighborhood context and the gender gap in adolescent violent crim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5(6), 958-980.

< 부록 >

1. 종속변수 :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2))

<표 부록-1> 학교폭력 가해, 피해

코드명	변명	문항	있다	없다
DLQ1A05	가해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1	2
DLQ1A06	가해	다른 사람 집단 따돌림(왕따) 시키기	1	2
DLQ1A08	가해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1	2
DLQ1A09	가해	다른 사람 협박하기	1	2
DLQ1A10	가해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빼앗기)	1	2
DLQ2B01	피해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1	2
DLQ2B02	피해	집단 따돌림(왕따) 시키기	1	2
DLQ2B03	피해	심하게 때리기	1	2
DLQ2B04	피해	협박하기	1	2
DLQ2B05	피해	돈이나 물건 빼앗기기(빼앗기기)	1	2
DLQ2B06	피해	성희롱이나 성폭행	1	2

2. 개인요인(level-1)

가. 개인적 특성 : 자아존중감, 공격성

나. 가정 특성 : 방임, 학대

다. 학교 특성 : 학습태도,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급규칙, 비행친구

<표 부록-2> 개인, 가정, 학교 특성

코드명	변인명	문항	전혀 그렇 지않 다	그렇 지않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PSY2A01	자아존중감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1	2	3	4
PSY2A02	자아존중감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PSY2A03	자아존중감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1	2	3	4
PSY2A04	자아존중감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1	2	3	4
PSY2A05	자아존중감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1	2	3	4
PSY2A06	자아존중감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1	2	3	4

코드명	변인명	문항	전혀 그렇 지않 다	그렇 지않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PSY2A07	자아존중감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1	2	3	4
PSY2A08	자아존중감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1	2	3	4
PSY2A09	자아존중감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1	2	3	4
PSY2A10	자아존중감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1	2	3	4
PSY1B01	공격성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1	2	3	4
PSY1B02	공격성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1	2	3	4
PSY1B03	공격성	내가 원하는 것을 못 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1	2	3	4
PSY1B04	공격성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1	2	3	4
PSY1B05	공격성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1	2	3	4
PSY1B06	공격성	아무 이유 없이 울 때가 있다.	1	2	3	4
FAM3A01	방임	다른 일(직장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1	2	3	4
FAM3A02	방임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	1	2	3	4
FAM3A03	방임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 쓰신다	1	2	3	4
FAM3A04	방임	내가 많이 아프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신다	1	2	3	4
FAM3B01	학대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1	2	3	4
FAM3B02	학대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1	2	3	4
FAM3B03	학대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많다	1	2	3	4
FAM3B04	학대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 (예: 멍청이, 개만도 못한 것, 나가 죽어라,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등)	1	2	3	4
EDU2B01	학교규칙	당번이나 1인 1역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1	2	3	4
EDU2B02	학교규칙	복도와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1	2	3	4
EDU2B03	학교규칙	학교 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한다	1	2	3	4
EDU2B04	학교규칙	화장실이나 급식실에서 차례를 잘	1	2	3	4

코드명	변인명	문항	전혀 그렇 지않 다	그렇 지않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지킨다				
EDU2B05	학교규칙	휴지나 쓰레기를 버릴 때 꼭 휴지통에 버린다	1	2	3	4
EDU2A01	학습활동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1	2	3	4
EDU2A02	학습활동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1	2	3	4
EDU2A03	학습활동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1	2	3	4
EDU2A04	학습활동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친구들)에게 물어본다	1	2	3	4
EDU2A05	학습활동	공부 시간에 딴 짓을 한다	1	2	3	4
EDU2B01	교사관계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1	2	3	4
EDU2B01	교사관계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1	2	3	4
EDU2B01	교사관계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1	2	3	4
EDU2B01	교사관계	우리 선생님께서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1	2	3	4
EDU2B01	교사관계	우리 선생님께서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1	2	3	4
EDU2C01	교우관계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1	2	3	4
EDU2C02	교우관계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1	2	3	4
EDU2C03	교우관계	친구가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 준다	1	2	3	4
EDU2C04	교우관계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 준다	1	2	3	4
EDU2C05	교우관계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	1	2	3	4

코드명	변인명	문항	있다	없다
DLQ3A01	비행친구	담배 피우기	1	0
DLQ3A02	비행친구	술 마시기	1	0
DLQ3A03	비행친구	무단결석	1	0
DLQ3A04	비행친구	가출	1	0
DLQ3A05	비행친구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1	0
DLQ3A06	비행친구	다른 사람 집단따돌림	1	0
DLQ3A07	비행친구	패싸움	1	0
DLQ3A08	비행친구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1	0
DLQ3A09	비행친구	다른 사람 협박하기	1	0

DLQ3A10	비행친구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	1	0
DLQ3A11	비행친구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1	0
DLQ3A12	비행친구	성관계	1	0
DLQ3A13	비행친구	성폭행이나 성희롱	1	0
DLQ3A14	비행친구	돈을 걸고 도박 게임하기	1	0

3. 지역사회요인 측정(level-2) : 한국범죄피해조사

- 가. 이웃유대감
- 나. 집합효율성
- 다. 지역무질서
- 라. 지역 내 범죄위험성
- 마. 지역평균수준

<표 부록-3> 지역사회요인

척도명	변인명	문항	전혀 그렇 지않 다	그렇 지않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범죄피해조사	이웃유대감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었다	1	2	3	4	5
범죄피해조사	이웃유대감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1	2	3	4	5
범죄피해조사	이웃유대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도왔다	1	2	3	4	5
범죄피해조사	이웃유대감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	2	3	4	5
범죄피해조사	집합효율성	동네 아이가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도와줄 것 같았다	1	2	3	4	5
범죄피해조사	집합효율성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았다	1	2	3	4	5
범죄피해조사	집합효율성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을 해야 한다면 이 활동에 참여할 것 같았다	1	2	3	4	5
범죄피해조사	지역무질서	주변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고 지저분했다.	1	2	3	4	5
범죄피해조사	지역무질서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았다.	1	2	3	4	5
범죄피해조사	지역무질서	주변에 방치된 차나 빈 건물이 많았다	1	2	3	4	5
범죄피해조사	지역무질서	기초질서(무단횡단, 불법주차 등)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1	2	3	4	5
범죄피해조사	지역무질서	무리지어 다니는 불량청소년들이 많았다	1	2	3	4	5
범죄피해조사	지역무질서	큰 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1	2	3	4	5
범죄피해조사	지역 내 범죄위험성	누군가 몰래 내 돈이나 물건을 훔쳐갈까 봐 두렵다	1	2	3	4	5
범죄피해조사	지역 내 범죄위험성	누군가 강제로 내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갈까 봐 두렵다	1	2	3	4	5
범죄피해조사	지역 내 범죄위험성	누군가 나를 구타(폭행)하여 다치게 할까 봐 두렵다	1	2	3	4	5
범죄피해조사	지역 내 범죄위험성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해 내 재산을 잃을까 봐 두렵다	1	2	3	4	5

척도명	변인명	문항	전혀 그렇 지않 다	그렇 지않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범죄피해조사	지역 내 범죄위험성	누군가 나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할까 봐 두렵다	1	2	3	4	5
범죄피해조사	지역 내 범죄위험성	누군가 내 물건이나 재산을 부수거나 못쓰게 할까 봐 두렵다	1	2	3	4	5
범죄피해조사	지역 내 범죄위험성	누군가 내 집에 침입할까 봐 두렵다	1	2	3	4	5
범죄피해조사	지역 내 범죄위험성	누군가 나를 쫓아다니거나 전화 등으로 집요하게 괴롭힐까 봐 두렵다	1	2	3	4	5
범죄피해조사	지역평균소득	조사 대상 가구의 소득 수준(작년 한해)	1	월평균 100만 원 미만			
			2	월평균 100~200만 원 미만			
			3	월평균 200~300만 원 미만			
			4	월평균 300~400만 원 미만			
			5	월평균 400~500만 원 미만			
			6	월평균 500~600만 원 미만			
			7	월평균 600~700만 원 미만			
			8	월평균 700~1,000만 원 미만			
			9	월평균 1,000만원 이상			

4. 지역코드

<표 부록-4> 지역코드

시, 도	군, 구	코드명(청소년패널)	코드명(범죄피해)
서울	강남구	1001	11230
서울	강동구	1002	11250
서울	강북구	1003	11090
서울	강서구	1004	11160
서울	관악구	1005	11210
서울	광진구	1006	11050
서울	구로구	1007	11170
서울	금천구	1008	11180
서울	노원구	1009	11110
서울	도봉구	1010	11100
서울	동대문구	1011	11060
서울	동작구	1012	11200
서울	마포구	1013	11140
서울	서대문구	1014	11130
서울	서초구	1015	11220
서울	성동구	1016	11040
서울	성북구	1017	11080
서울	송파구	1018	11240
서울	양천구	1019	11150
서울	영등포구	1020	11190
서울	용산구	1021	11030
서울	은평구	1022	11120
서울	종로구	1023	11010
서울	중구	1024	11020
서울	중랑구	1025	11070
부산	강서구	2001	21120
부산	금정구	2002	21110
부산	기장군	2003	-
부산	남구	2004	21070
부산	동구	2005	21030
부산	동래구	2006	21060
부산	부산진구	2007	21050
부산	북구	2008	21080
부산	사상구	2009	21150
부산	사하구	2010	21100
부산	서구	2011	21020
부산	수영구	2012	21140
부산	연제구	2013	21130
부산	영도구	2014	21040
부산	중구	2015	21010
부산	해운대구	2016	21090
대구	남구	2101	22040
대구	달서구	2102	22070
대구	달성군	2103	-
대구	동구	2104	22020
대구	북구	2105	22050
대구	서구	2106	22030
대구	수성구	2107	22060
대구	중구	2108	22010
인천	강화군	2201	23310

인천	계양구	2202	23070
인천	남구	2203	23030
인천	남동구	2204	23050
인천	동구	2205	23020
인천	부평구	2206	23060
인천	서구	2207	23080
인천	연수구	2208	23040
인천	옹진군	2209	23320
인천	중구	2210	23010
광주	광산구	2301	24050
광주	남구	2302	24030
광주	동구	2303	24010
광주	북구	2304	24040
광주	서구	2305	24020
대전	동구	2401	25010
대전	중구	2402	25020
대전	서구	2403	25030
대전	유성구	2404	25040
대전	대덕구	2405	25050
울산	남구	2501	26020
울산	동구	2502	26030
울산	북구	2503	26040
울산	울주군	2504	26310
울산	중구	2505	26010
세종	세종시	2600	29010
경기	가평군	3001	31370
경기	고양시	3002	31100
경기	과천시	3003	31110
경기	광명시	3004	31060
경기	광주시	3005	31250
경기	구리시	3006	31120
경기	군포시	3007	31160
경기	김포시	3008	31230
경기	남양주시	3009	31130
경기	동두천시	3010	31080
경기	부천시	3011	31050
경기	성남시	3012	31020
경기	수원시	3013	31010
경기	시흥시	3014	31150
경기	안산시	3015	31090
경기	안성시	3016	31220
경기	안양시	3017	31040
경기	양주시	3018	31260
경기	양평군	3019	31380
경기	여주군	3020	31320
경기	연천군	3021	31350
경기	오산시	3022	31140
경기	용인시	3023	31190
경기	의왕시	3024	31170
경기	의정부시	3025	31030
경기	이천시	3026	31210
경기	파주시	3027	31200
경기	평택시	3028	31070
경기	포천시	3029	31270
경기	하남시	3030	31180
경기	화성시	3031	31240

강원	강릉시	3101	32030
강원	고성군	3102	32400
강원	동해시	3103	32040
강원	삼척시	3104	32070
강원	속초시	3105	32060
강원	양구군	3106	32380
강원	양양군	3107	32410
강원	영월군	3108	32330
강원	원주시	3109	32020
강원	인제군	3110	32390
강원	정선군	3111	32350
강원	철원군	3112	32360
강원	춘천시	3113	32010
강원	태백시	3114	32050
강원	평창군	3115	32340
강원	홍천군	3116	32310
강원	화천군	3117	32370
강원	횡성군	3118	32320
충북	괴산군	3201	33360
충북	단양군	3202	33380
충북	보은군	3203	33320
충북	영동군	3204	33340
충북	옥천군	3205	33330
충북	음성군	3206	33370
충북	제천시	3207	33030
충북	증평군	3208	33390
충북	진천군	3209	33350
충북	청원군	3210	33310
충북	청주시	3211	33010
충북	충주시	3212	33020
충남	계룡시	3301	34070
충남	공주시	3302	34020
충남	금산군	3303	34310
충남	논산시	3304	34060
충남	당진시	3305	34080
충남	보령시	3306	34030
충남	부여군	3307	34330
충남	서산시	3308	34050
충남	서천군	3309	34340
충남	아산시	3310	34040
충남	예산군	3311	34370
충남	천안시	3312	34010
충남	청양군	3313	34350
충남	태안군	3314	34380
충남	홍성군	3315	34360
전북	고창군	3401	35370
전북	군산시	3402	35020
전북	김제시	3403	35060
전북	남원시	3404	35050
전북	무주군	3405	35330
전북	부안군	3406	35380
전북	순창군	3407	35360
전북	완주군	3408	35310
전북	익산시	3409	35030
전북	임실군	3410	35350
전북	장수군	3411	35340

전북	전주시	3412	35010
전북	정읍시	3413	35040
전북	진안군	3414	35320
전남	강진군	3501	36390
전남	고흥군	3502	36350
전남	곡성군	3503	36320
전남	광양시	3504	36060
전남	구례군	3505	36330
전남	나주시	3506	36040
전남	담양군	3507	36310
전남	목포시	3508	36010
전남	무안군	3509	36420
전남	보성군	3510	36360
전남	순천시	3511	36030
전남	신안군	3512	36480
전남	여수시	3513	36020
전남	영광군	3514	36440
전남	영암군	3515	36410
전남	완도군	3516	36460
전남	장성군	3517	36450
전남	장흥군	3518	36380
전남	진도군	3519	36470
전남	함평군	3520	36430
전남	해남군	3521	36400
전남	화순군	3522	36370
경북	경산시	3601	37100
경북	경주시	3602	37020
경북	고령군	3603	37370
경북	구미시	3604	37050
경북	군위군	3605	37310
경북	김천시	3606	37030
경북	문경시	3607	37090
경북	봉화군	3608	37410
경북	상주시	3609	37080
경북	성주군	3610	37380
경북	안동시	3611	37040
경북	영덕군	3612	37350
경북	영양군	3613	37340
경북	영주시	3614	37060
경북	영천시	3615	37070
경북	예천군	3616	37400
경북	울릉군	3617	-
경북	울진군	3618	37420
경북	의성군	3619	37320
경북	청도군	3620	37360
경북	청송군	3621	37330
경북	칠곡군	3622	37390
경북	포항시	3623	37010
경남	거제시	3701	38090
경남	거창군	3702	38390
경남	고성군	3703	32400
경남	김해시	3704	38070
경남	남해군	3705	38350
경남	밀양시	3706	38080
경남	사천시	3707	38060
경남	산청군	3708	38370

경남	양산시	3709	38100
경남	의령군	3710	38310
경남	진주시	3711	38030
경남	창녕군	3712	38330
경남	창원시	3713	38110
경남	통영시	3714	38050
경남	하동군	3715	38360
경남	함안군	3716	38320
경남	함양군	3717	38380
경남	합천군	3718	38400
제주	서귀포시	3801	39020
제주	제주시	3802	39010

5. 조사대상자 시군구 분포

<표 부록-5> 전국 시군구 별 조사대상자 분포

순번	시·도	시·군·구	지역코드	응답자 수	순번	시·도	시·군·구	지역코드	응답자 수
1	서울	강남구	1001	28	74	경기	여주군	3020	0
2	서울	강동구	1002	0	75	경기	오산시	3022	0
3	서울	강북구	1003	0	76	경기	의왕시	3024	0
4	서울	강서구	1004	56	77	경기	의정부시	3025	1
5	서울	관악구	1005	0	78	경기	이천시	3026	0
6	서울	광진구	1006	30	79	경기	파주시	3027	0
7	서울	구로구	1007	0	80	경기	평택시	3028	0
8	서울	금천구	1008	1	81	경기	포천시	3029	0
9	서울	노원구	1009	12	82	경기	하남시	3030	0
10	서울	도봉구	1010	0	83	경기	화성시	3031	0
11	서울	동대문구	1011	1	84	강원	강릉시	3101	0
12	서울	동작구	1012	1	85	강원	동해시	3103	1
13	서울	마포구	1013	20	86	강원	삼척시	3104	0
14	서울	서대문구	1014	3	87	강원	원주시	3109	34
15	서울	서초구	1015	1	88	강원	철원군	3112	0
16	서울	성동구	1016	0	89	강원	춘천시	3113	55
17	서울	성북구	1017	0	90	강원	홍천군	3116	0
18	서울	송파구	1018	1	91	강원	화천군	3117	0
19	서울	양천구	1019	32	92	강원	횡성군	3118	20
20	서울	영등포구	1020	0	93	충북	단양군	3202	0
21	서울	용산구	1021	0	94	충북	보은군	3203	2
22	서울	은평구	1022	24	95	충북	영동군	3204	0
23	서울	종구	1024	0	96	충북	옥천군	3205	1
24	부산	금정구	2002	0	97	충북	제천시	3207	31
25	부산	남구	2004	25	98	충북	진천군	3209	0
26	부산	동래구	2006	0	99	충북	청원군	3210	30
27	부산	부산진구	2007	20	100	충북	충주시	3212	31
28	부산	북구	2008	4	101	충남	공주시	3302	0
29	부산	사상구	2009	25	102	충남	논산시	3304	0
30	부산	사하구	2010	1	103	충남	서산시	3308	1
31	부산	서구	2011	1	104	충남	아산시	3310	31
32	부산	수영구	2012	0	105	충남	예산군	3311	0
33	부산	연제구	2013	0	106	충남	홍성군	3315	0
34	부산	영도구	2014	32	107	전북	고창군	3401	0
35	부산	중구	2015	0	108	전북	군산시	3402	30
36	부산	해운대구	2016	1	109	전북	김제시	3403	0
37	대구	남구	2101	2	110	전북	부안군	3406	0
38	대구	달서구	2102	29	111	전북	완주군	3408	0

순번	시·도	시·군·구	지역코드	응답자 수	순번	시·도	시·군·구	지역코드	응답자 수
39	대구	동구	2104	1	112	전북	익산시	3409	33
40	대구	북구	2105	39	113	전북	정읍시	3413	0
41	대구	서구	2106	35	114	전남	강진군	3501	0
42	대구	수성구	2107	41	115	전남	곡성군	3503	0
43	대구	중구	2108	2	116	전남	광양시	3504	2
44	인천	계양구	2202	29	117	전남	목포시	3508	1
45	인천	남구	2203	54	118	전남	순천시	3511	36
46	인천	남동구	2204	2	119	전남	여수시	3513	27
47	인천	부평구	2206	23	120	전남	장흥군	3518	0
48	인천	서구	2207	2	121	전남	함평군	3520	0
49	인천	연수구	2208	2	122	전남	화순군	3522	0
50	인천	중구	2210	21	123	경북	경산시	3601	0
51	광주	광산구	2301	14	124	경북	경주시	3602	31
52	광주	남구	2302	22	125	경북	고령군	3603	31
53	광주	동구	2303	0	126	경북	구미시	3604	0
54	광주	북구	2304	25	127	경북	김천시	3606	29
55	광주	서구	2305	27	128	경북	문경시	3607	0
56	대전	동구	2401	16	129	경북	상주시	3609	0
57	대전	중구	2402	24	130	경북	안동시	3611	33
58	대전	서구	2403	30	131	경북	영주시	3614	0
59	대전	유성구	2404	1	132	경북	영천시	3615	0
60	대전	대덕구	2405	29	133	경북	예천군	3616	0
61	울산	남구	2501	42	134	경북	의성군	3619	0
62	울산	동구	2502	0	135	경남	거제시	3701	0
63	울산	북구	2503	31	136	경남	김해시	3704	23
64	울산	울주군	2504	9	137	경남	밀양시	3706	0
65	울산	중구	2505	25	138	경남	사천시	3707	0
66	경기	광명시	3004	32	139	경남	양산시	3709	0
67	경기	구리시	3006	29	140	경남	의령군	3710	0
68	경기	군포시	3007	2	141	경남	진주시	3711	39
69	경기	김포시	3008	28	142	경남	통영시	3714	0
70	경기	남양주시	3009	29	143	경남	하동군	3715	25
71	경기	시흥시	3014	0	144	경남	합천군	3718	0
72	경기	안성시	3016	30	145	제주	서귀포시	3801	30
73	경기	양주시	3018	0	146	제주	제주시	3802	102

- 합계 : 2312

- 무응답 : 21

- 지역 수 : 81

국문초록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요인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

박진희

아동청소년학과 청소년전공
중앙대학교 대학원

지금까지 학교폭력 관련 요인인 학교부적응, 비행, 범죄율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요인의 영향력은 기존 연구에서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사회요인들을 이론적으로 정리하여, 지역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힌 연구는 일반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학생 청소년의 개인요인은 청소년의 학교폭력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중학생 청소년의 개인요인(개인, 학교, 가정)은 지역사회요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학교폭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분석 자료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YCPS), 전국범죄피해조사, e-나라지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HGLM(위계적일반화선형모형)방법을 활용하여 개인요인의 영향력과 지역사회요인의 영향력을 구분, 각각의 영향력 및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학교폭력경험에 대한 개인요인(개인적 특성, 가정 특성, 학교 특성)의 영향력은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경우 자아존중감, 비행친구 수준이 모두 높을 때 높게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경험의 경우 비행친구 변수가 정적인 방향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요인은 지역사회요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 변수는 자아존중감과 이웃유대감, 자아존중감과 집합효율성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비행친구와 이웃유대감변수도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요인은 지역사회요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변수는 학교 특성인 교우관계와 집합효율성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요인과 개인요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중요하게 다뤄야 함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을 감소시키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성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요인의 체계적, 종합적 접근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핵심어 : 지역사회, 학교폭력, 개인요인, 지역사회요인, 상호작용, 위계적일반화선형모형

Abstract

The Interaction Effects of Community Factors that Affect School Violence

Park, Jin-hee

Major in Youth Studies

Department of Child and Youth Studies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So far, a lot of preceding studies have diversely examined and confirmed the effects of community factors that affect such school violence-related factors as school maladjustment, delinquency and crime rate. However, studies that have organized these community factors theoretically and then examined its effects on school violence are not still generalized.

In this regard, this study established following study questions: First, 'How middle school student's individual factors have effects on their experience in school violence?'; and second, 'What effects do middle school student's individual factors(personal, family and school) have on school violence through its interaction with community factors?' As analytic data, this study used data from Korean Youth and Children Panel Survey(KYCPS), Korean Crime Victim Survey, and e-national index by Statistics Korea. As a method of analysis, this study used the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HGLM) and then divided the effects of individual factors from the effects of community factors, thus analyzing the effects of both factors and their interaction effects.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s of individual factors(personal, family and school characteristics) on the victimized experience in school violence were high when the level of both self-esteem and delinquent friends were high. On the other hand, the variable of delinquent friends had positive effects on the assault experience in school violence. Second, Through its interaction with community factors, individual factors had effects on the victimized experience in school violence. The interactive variables that affected the victimized experience in school violence were self-esteem and neighborhood tie, and self-esteem and collective efficiency. In addition, delinquent friends and social bonding showed the effects of interaction as well. And third, individual factors had effects on the assault experience in school violence through its interaction with community factors. The interactive variables that affecting the assault experience in school violence were peer relations in schools and collective efficiency.

As the above study findings show,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community factors and individual factors that affect personal behavior must be dealt crucially. In order to reduce school violence and create a safe educational environment, it is necessary for adults who can have influence on youths to take interest in youths and participate in the reduction of school violence actively. Based on study finding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with which one can approach to school violence-related community factors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Key words: Community, School violence, Individual factor, Community factor, Interaction,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